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 仁 淑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和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mbolical Nature and Expression
Feature which appeared in Tattooing

- Centering around Body Art -

2001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壬 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 仁 淑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和 表現特性에 관한 研究

-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mbolical Nature and Expression
Feature which appeared in Tattooing

- Centering around Body Art -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壬 貞

金壬貞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12月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원시화장의 한 형태인 문신이 가지는 각 사회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관찰해 보고, 미의 개념이란 영원불변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란 것을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미의 표현 형태로서의 문신의 특성 및 현대사회에서 바디아트(Body Art)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문신의 표현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수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원시종족은 신체장식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때로는 주술적 종교적 행사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채색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훼손하였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신체를 변형시키는 방법보다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가꾸고자 하는 미의식이 발생함으로써 신체장식은 다소 의미가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사회 곳곳에 등장함에 따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으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적 무드 아래 인간의 몸과 문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런 관심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바디 아트(Body Art)라는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미적 표현을 넓히는 새로운 예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중 문신은 시각적인 화려함과 함께 문신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시도하고 있다. 바디 아

우리나라에서의 문신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신체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문신은 크게 미국식과 일본식으로 나뉘는데 미국식 문신이 문양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반해, 일본식 문신은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크기가 크고,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한다. 전통적인 문신에 나타나는 용, 잉어, 호랑이등은 의리와 명예등과 관련이 있으며, 장미, 나비등은 성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해골은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문양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저급한 행위가 아닌 인간의 신체에 대한 주권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에 행해지는 하나의 예술적인 활동, 즉 바디아트로 미래로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친숙한 신체에 행해지는 화장의 형태로 변화 될 것이다.

문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능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치장 되어져 왔다.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문신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에만 행해지던 메이크업의 영역이 신체로 확대되면서 바디아트의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 되어진다고 본다.

본 논문은, 바디아트로서의 문신이 새로운 예술형태로 자리매김하려는 시점에서 하나의 시도이며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학문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 문 초 록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화장으로서의 문신의 일반적 고찰	5
1. 화장의 기원	5
1) 미화설	5
2) 신분표시설	6
3) 보호설	7
4) 주술 및 종교설	8
2. 문신의 개념과 발전	10
1) 문신의 개념	11
2) 문신의 기원과 변천	11
3) 문신의 목적 및 방법	14
3. 문신의 사회적 표현속성과 의미	23
1) 문신의 사회성 표현	23
2) 문신의 범죄자 표시	30
3) 문신의 연정의 표시	32
4) 문신의 집단 표시	33
5) 점상문신	35
6) 자아표현과 문신	36

Ⅲ.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정체성	39
1. 문신의 종류	40
1) 나라별 구분	40
2) 스타일별 구분	42
2. 문신에 나타난 전통 문양의 상징성	45
1) 힘과 성취의 상징 - 용(龍, Dragon)	45
2) 인내와 용기의 상징 - 잉어(鯉魚, Carp)	47
3) 용맹의 상징 - 호랑이(虎, Tiger)	48
4) 부활의 상징 - 나비(蝶, Butterfly)	49
5) 욕망의 상징 - 장미(Rose)	50
6) 삶의 덧없음의 상징 - 해골(skeleton)	51
7) 수호신의 상징 - 도깨비(獨脚鬼)	52
3. 문신의 정체성과 예술성	54
Ⅳ. 문신의 표현적 특성	57
1. 문신의 하위문화적 표현	58
2. 문신의 원시성 표현	62
3. 문신의 성적 욕망 표현	65
4. 문신에 대한 인식 전환	70
Ⅴ. 결 론	74
참 고 문 헌	78
ABSTRACT	83

그 림 목 차

그림 1. 미화설	9
그림 2. 신분표시설	9
그림 3. 신체보호설	9
그림 4. 주술 및 종교설	9
그림 5. 카로족의 장식	15
그림 6. 입술마개를 한 차드족 여성	15
그림 7. 상흔으로 얼굴 장식한 부미족	15
그림 8. 누바족 여성의 상흔	19
그림 9. 누바족 남성의 상흔	19
그림10. 다양한 문신의 도구들	22
그림11. 예멘족의 아기	24
그림12.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성	24
그림13. 사모아인의 문신 시술 장면	25
그림14. 마오리족 추장의 문신	26
그림15. 마오리족의 문신은 불사의 상징이다	28
그림16. 말케사스섬의 예술적 문신	29
그림17. 유럽의 의복 스타일을 몸에 새긴 말케사스인	29
그림18. 전통적 미국식 문신	40
그림19. 문신문양스케치	41
그림20. 구니요시의 삽화를 문신한 모습	41
그림21. 조지클루니의 트라이벌 문신	43
그림22. 팔에 새긴 트라이벌	43
그림23. 극사실적 문신의 다양한 예	44
그림24. 개인적 신념이나 소속집단표시의 문신	44
그림25. 초 현실적 구성의 문신	44

그림26. 인간의 신체를 로봇처럼 형상화 한 문신	44
그림27. 용문신	46
그림28. 힘과 성취를 상징하는 용	46
그림29. 임신출세 및 인내와 용기를 상징	47
그림30. 전체문신	48
그림31. 용맹을 상징	48
그림32. 나비문신의 다양한 예	49
그림33. 장미는 욕망의 상징이다	50
그림34.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문신	52
그림35.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도깨비	53
그림36. 문신과 피어싱으로 장식 된 신체	55
그림37. 펑크족 스타일	60
그림38. 펑크족의 문신	61
그림39. 세기말의 불안함을 타투메이크업으로 표현	63
그림40. 신체장식의 변형	64
그림41. Sonia Rykiel	64
그림42. 가슴에 새긴 크리스탈 타투	69
그림43. 크리스탈 타투의 관능적 표현	69
그림44. Alexander McQueen	69
그림45. 에로틱한 페티시 이미지의 표현	69
그림46. 크리스탈 타투	70
그림47. 누바족의 상흔	70
그림48. 신세대 가수 박지윤	71
그림49. 하리수의 문신	71
그림50. 젊은이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문신	7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수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원시종족은 신체장식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때로는 주술적 종교적 행사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채색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훼손하였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신체를 변형시키는 방법보다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가꾸고자 하는 미의식이 발생함으로써 신체장식은 다소 의미가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말로 접어들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고 존중 받으면서, 기존의 이상미에 따른 획일화보다는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신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뀌면서 신체장식은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중 문신은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동적인 표현수단으로, 한 번 몸에 새겨지면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으나, 현대에 이르러 일시적인 문신법이 개발 되어져 일반대중이 보다 쉽게 자신을 꾸미고 개성을 창출하는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신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이유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인체를 훼손하는 것을 아주 불경한 태도로 인식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에 있어 범죄자의 신체에 문신을 새김으로써 일반대중의 의식 속에는 문신

이란 나쁜 것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문신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 특히 이들은 신체 곳곳에 힘과 용맹성을 상징하는 용, 호랑이, 뱀 등을 새겨 보는 사람으로 하여 위화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들 역시 문신이 새겨지는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결속과 함께 동지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급변하는 20세기말과 21세기로 향하는 현대의 특징은 인간의 도덕적·윤리적 규범과 가치관마저도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 미적 가치의 기준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¹⁾ 20세기말의 혼돈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에 힘입어 현대 패션계에도 새로운 감각이 등장하고, 새로운 미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정신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시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으며, 이런 의식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이런 관심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바디 아트(Body Art)라는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미적 표현을 넓히는 새로운 예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중 문신은 시각적인 화려함과 함께 문신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시도하고 있다. 바디 아트 중에서도 문신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미래사회로 나아갈수록 보다 더 선호되어지는 화장기법으로 신인류에게 그 세력을 넓혀갈 것이라 본다.

이처럼 원시화장의 한 형태인 문신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회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사회·문화적 의미가 변화돼 왔다. 이에 따라 문신이 가지는 각 사회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관찰해 보고, 미의 개념이란 영원불변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란 것을 인식하는데

1) 조은별, 20세기화장문화,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5, p.2.

그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미의 표현 형태로서의 문신의 특성 및 현대사회에서 바디아트(Body Art)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문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문신 역시 화장의 한 형태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화장의 기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화장의 기원은 미화설, 신분표시설, 보호설, 주술 및 종교설로 나누었다. 그리고 문신의 개념 및 기원과 변천, 문신의 동기 및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신의 다양한 사회적 표현속성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문신은 주술적 기능 및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인간의 사랑의 표식으로, 결의의 상징으로, 억눌린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 등으로 쓰였다. 이처럼 문신은 각 사회마다 다양한 의미와 함께 기능을 수행했다.

제3장에서는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 보고, 문신의 예술적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현대의 문신은 다양하여 나라별, 스타일별 구분이 가능하며, 문양이 가지는 상징 또한 다양하다. 또한 바디아트로서의 문신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바디아트는 신체에 행해지는 모든 예술활동을 말하며, 현대인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문신의 표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신은 하위문화의 스타일로 표현되면서 현대패션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다소 부정적이던 문신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신이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현대인들이 문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원인과 새로운 미적 표현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신의 다양한 예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신체예술로서의 문신에 대한 현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 문화, 예술, 패션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와 문신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인터넷, 잡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문신이라는 연구대상이 본질적으로 시각적인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내외 문헌과 인터넷, 잡지에 실린 사진을 시각자료로 제시하였다.

Ⅱ . 화장으로서의 문신의 일반적 고찰

1. 화장의 기원

화장(化粧)이란 말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로서, 넓은 의미로는 육체의 일부를 표면적으로 변형하는 인류 특유의 풍습의 하나이며, 좁은 의미로 보면 재료에 관계없이 직접 사람을 미화하는 장식 수단의 하나이다.²⁾

이런 화장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이란 말은 단지 얼굴을 아름답게 잘 조화시켜서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뷰티 메이크업 (beauty make-up)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인류가 화장을 시작한 것은 인류의 태동과 같은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성욕이나 식욕이 인간의 본능이듯이 자신을 꾸미는 행위 또한 본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³⁾ 이처럼 화장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서 자신을 미화시키는 수단 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종족의 표현, 신체의 보호, 주술적 행위 등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다.

1) 미화설

인간이 먹고자 하는 욕구와 혼인하여 자손을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본능이듯

2)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p.23.

3)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p.13.

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며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본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욕, 성욕과 아울러 화장욕구는 인간의 3대 본능으로서, 태고적부터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일부의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 혹은 위장하고자 노력해 왔다.⁴⁾

사실 인간의 신체는 근본적으로 변신을 하거나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대로의 자기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비록 외관에 그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기 좋게 변하고 싶어한다(그림1).

인간이 화장을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2) 신분표시설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 부족 등을 나타내는 표시적인 것이 미화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설이다. 인디언이나 미개사회의 추장이 추장답게 갖가지 장신구와 색칠을 하여 위엄을 나타낸다든지, 종족에 따라 각기 다른 치장을 하고 있으며⁵⁾, 이러한 치장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동안에 미화수단이 되었다는 설이다. 즉 남녀의 구별이나 계급과 같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장이 비롯 되었다는 견해로서 지금도 미개사회에서는 장식을 하여 남자와 여자, 추장과 평민, 노예 따위가 확실히 구별되도록 하는데 태초의 치장도 이처럼 신분을 표시하는 데서 비롯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표시설은 현재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사이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4) 전완길, 앞의 책, p.13.

5) 위의 책, p.13.

아프리카 민족간에 행해지는 특이한 헤어스타일, 귀걸이, 코걸이, 팔찌 등은 단순히 미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신분이나 계급 혹은 부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초기 지배자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갖추거나 여러 의식이나 행사에서 민중과의 구별을 위하여 대부분 요란한 치장을 하였다(그림2). 이는 신과의 대화자이며 신화에 의한 인간의 통치자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일반 민중과 동류가 아님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이나 육체의 일부를 붉은 색이나 백납, 식물성 색소에서 채취한 여러가지 색채로 채색하여 민중 위에 군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표시를 위해 행해지던 치장이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인의 미화의 방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설이다.

3) 보호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위장 내지는 은폐시키기 위한 치장이 미화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설이다.⁶⁾ 기원 전 3000년경 이집트의 여성들은 따가운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독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 가장자리에 공작석의 가루와 구리의 푸른 광석, 방연광 또는 어두운 빛깔의 광석 등을 석판에 갈아서 칠했다(그림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삼한시대(三韓時代)의 바닷가 사람들이 바다와 강에 들어가기 전에 쪽으로 손과 발에 물감을 들였고, 산촌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손뚝과 발뚝에 붉은 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⁷⁾ 그리고 보온을 목적으로 신체에 짐승의 기름을 두껍게 발랐다.⁸⁾

6) 전완길, 앞의 책, p.14.

7) 위의 책, p.14.

4) 주술 및 종교설

인간은 극히 불안하고 고민하는 존재로서,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모를 다듬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불행과, 죽음과 재화(災禍)를 의식하는 동물로서 그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걱정을 하는데, 이러한 불행과 재화의 원인을 초자연의 힘에 두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신과 정령들을 초대하여 가능한 한 대접하고 그의 가호로서 초자연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술이다.⁹⁾

고대에서 주술적 기능은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한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다. 따라서 신령의 힘이나 정령의 힘을 자신의 신체에 싣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가면이나 화장을 사용하였다. 그 한 예로, 독수리나 사자 같은 동물을 신체에 그려 넣음으로써 인간이 가지지 못한 동물의 힘을 신체에 싣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이 소유하지 못한 동물의 힘을 부여받고 인간의 생활 영역 밖으로 힘을 확장시키고 한정된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고자 하였다.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인들은 악령과 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얼굴에 칠을 하였으며, 아이보리 해변의 무당은 약초와 신성한 강물로 혼합 된 흰 진흙을 그녀의 눈에 칠했다. 이러한 화장을 통해 그녀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림4).¹⁰⁾

8) 조은별, 앞의 논문, p.7.

9) 박보영,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 박사 학위논문, 1997, p.20.

10) Victoria Ebin, 임숙자 역, 신체장식, 경춘사, 1988, p.19.



그림1. 미화설
(출처 : 마지막 원시인, p.27)



그림2. 신분표시설
(출처 : Decorated Skin, p.71)



그림3. 신체보호설
(출처 : 화장술의 역사, p.16)



그림4. 주술 및 종교설
(출처 : 신체장식, p.18)

- 화장의 기원 -

이처럼 인간은 화장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표출해 왔다. 단순히 자신을 장식하기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장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고대 원시화장에 있어 주술적 기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로 신체도색·상흔·문신 등을 통해서 표현되어졌다. 이런 원시화장의 경우 그 욕구가 때때로 육체적 고통을 거쳐 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문신은 동적이고 시각적 매력을 주는 원시화장법으로 지금도 원시문명을 가진 원시부족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본 연구자는 문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표현 속성과 의미를 살펴 보고 현대에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문신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 문신의 개념과 발전

사람의 살갗에 상처를 내어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문신은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행해졌다. 사회계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자연으로부터의 위험과 전염병 확산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자임을 표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멸시하는 표현수단으로 운용되기도 하였다.

문신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적극적인 표현방법으로서 현대 사회에 와서 패션의 한 코드로 작용한다.

1) 문신의 개념

문신(文身)이란 살갗에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사용하여 글씨나 그림 또는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몸에 치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入墨)이라 불려졌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 하였다.¹¹⁾

문신을 영어로 'tattoo' 독일어로 'tatowirungz' 불어로 'tatouage' 그리고 스페인어로 'tatuaje' 이탈리아어로는 'tatuaggio'이며 철자법만 약간씩 다를 뿐 모든 유럽의 언어에 존재해 왔다.¹²⁾

문신이라는 단어는 남태평양을 여행하고 돌아 온 영국의 쿠크함장에 의해 처음 영어로 소개 되었는데 타히티말의 치다라는 뜻의 'tatu'가 문신의 어원이라 할 수 있다. 'tatu'는 아랍어의 'daqq'와 유사한 의미로 이 두 단어는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한다.¹³⁾

현대에 와서 문신은 더 이상 영구적인 것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문신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지며, 바디페인팅, 헤너, 일회용 문신, 세미 타투(semi tattoo)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문신의 기원과 변천

문신의 풍습은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에서 출토 된 미이라와 세티 1세(재위

11)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두산동아, 1996, p.591.

12) <http://www.taegutattoo.com/main.htm>.

13) Victoria Ebin, 앞의 책, p.83.

BC 1317~BC 1301)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원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의 가슴에 문신을 새겨 넣어 붉게 물들임으로써 영혼을 따라 빠져 나온다는 관념이 있었다. 시체에 문신을 새겨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풍속은 이후 영생 불멸을 의미하는 죽음의 상징적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기원전 12세기경 중국의 주공단(周公旦)의 두 아들인 태백(太伯)과 우중(虞仲)이 형만으로 피신하여 살 때 그 곳 풍속에 따라 머리를 깎고 문신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들의 문신은 전신에 회색칠을 하는 것이었다.¹⁵⁾ 이 때 태백과 우중이 한 문신은 주나라의 습속에서 보면 이미 사망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문신이며, 살아 있으되 이미 영혼이 빠져 나갔음을 의미한 문신행위였다.

우리나라의 문신의 역사 또한 매우 오래 되었다. 중국의 기록 '위지(魏志)'에 의하면 마한인들이 '남녀가 때때로 문신을 했다(男女時時有文身)' 하였고, 변진인들이 '남녀가 왜와 같이 역시 문신을 했다(男女近倭 亦有文身)'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남방계 문화유입설의 한 근거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마한, 변진인의 문신은 자자 뿐만 아니라 장신구, 색깔 무늬 등의 장식이 포함된 멋내기 수단이자 주부(呪符)였고, 신분 계급을 표시하는 방편이었다. 즉 한국인 최초의 정형화된 치장이었다. 이 문신 가운데 색깔 무늬가 왜인의 문신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신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성행한 것처럼 표현되었다고 믿어진다.¹⁶⁾

이처럼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에서 출토 된 미이라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14)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제10권, 앞의 책, p.591.

15) 전완길, 앞의 책, p.22.

16) 전완길, 앞의 책, p.23.

문신의 풍습은 죽은 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죽음의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의례로도 활용되었고, 범죄자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년의식에 쓰였으며, 결혼이나 출산 때 부적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고대의 트라키아인, 그리스인, 갈리리아인, 게르만인들도 문신을 했다는 고전작가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로마인들은 죄수와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겼으며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유럽에서는 문신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문신이 사라지는 듯한 때도 있었으나 동부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행했으며 중동지역과 그 밖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¹⁷⁾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은 습관적으로 얼굴이나 몸 등에 문신을 했다고 전해진다.

유럽인들은 지리상의 발견을 계속하며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문신을 알게 되었으며, 문신을 한 인디언들과 폴리네시아인들, 그 후 해외에서 문신을 한 유럽인들은 18,9세기에 유럽과 미국의 전시회, 박람회, 서커스 등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¹⁸⁾

폴리네시아인들과 일본인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문신을 해주는 곳이 전 세계 항구 도시마다 생겨 났고 이곳에서는 문신전문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선원들에게 여러 모양의 문신을 그려 주었다. 1891년 전기문신 기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얻었다.¹⁹⁾ 그리하여 미국은 특별히 문신도안을 널리 보급해 이 방면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문신 형태들이 별다른 특징 없이 전세계적으로 소재가 비슷해지면서 20세기 초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유형들이 점차 사라졌다.

17) <http://www.sussas.com/main.htm>.

18) 이효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p.54.

19)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 제11권, p.120.

3) 문신의 목적 및 방법

문신은 신체에 한번 행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문신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하였다.

인류가 문신의 속성을 발견한 것은 아마 자신의 신체상의 상처를 자연에 방치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흙을 이용하면서, 자연적으로 신체에 색이 입혀진 것을 보고, 색이 신체에 입혀지면 물에 씻거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체 상에 장식의 목적이거나 결속의 상징, 신체보호 및 주술적인 의미로 문신을 사용했다.

(1) 문신의 목적

신체장식설의 주장자인 스타르(starr)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²⁰⁾ 여기에서 장식이란 몸에 걸치는 의복이나 장신구일 수도 있고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몸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표현을 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 원시사회 종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신이나 얼굴, 가슴 등에 점토나 안료를 가지고 여러 문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이러한 장식설로 설명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²¹⁾

신체장식의 방법으로는 몸에 색칠하는 방법(body painting), 문신(tattooing), 신체의 일부를 상처내어 파손 시키거나 형체를 바꾸는 방법(deformation, mutilation)을 들 수 있다.²²⁾ 또 그 형태로는 두 가지로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분류하

20)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91, p.49에서 재인용.

2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8, p.77.

거나 구별한다. 일시적인 형태는 화장, 칠, 면도나 잡아 맨 머리 등이 있고 영구적 형태는 매우 격렬한데 문신, 상흔 등 형체 변형을 들 수 있다. 그림 5는 에티오피아의 카로족이 신체를 점토로 채색한 것으로 흰색, 노랑, 빨강 등의 여러가지의 색을 사용하였다²³⁾. 그림 6은 입술마개(lip-plugs)를 한 차드족 여성의 모습으로 좀 더 큰 입술마개를 사용하기 위해 윗 입술을 자르고, 상처가 치유되면 더 큰 입술마개를 삽입한다. 입술마개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 그림 7은 얼굴에 일정한 상흔을 내어 장식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체장식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장식행동은 이성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으나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장식행동은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식행동은 절대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비로운 힘이 존재한다.²⁴⁾



그림5. 카로족의 장식
(출처 : Decorated Skin, p.131)



그림6. 입술마개를 한
차드족 여성
(출처 : 신체장식, p.15)



그림7. 상흔으로 얼굴
장식한 부미족
(출처 : Decorated Skin, p.129)

2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p.33.

23)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and Hudson, 1997, p.131.

24) Victoria Ebin, 앞의 책, p.8.

이처럼 신체장식의 적극적인 방법이자 원시화장 기법인 문신의 목적은 대략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술적 측면에서 종족의 상징이나 표시로, 장식적인 면보다는 장식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원시부족에서는 자신들의 가족이나 부족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단 족속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들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동물을 선택하여 몸에 새기고 그려 넣었다. 이러한 특징적 표시는 소속집단을 나타내고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여 준다. 즉, 반영구적인 신체장식을 통해 각 개인은 소속집단의 사람들과 그 경계 밖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위로서의 신분의 상징이다. 신체의 중요한 기능은 유아기에서 사춘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단계를 거치며 사회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나타낸다.²⁵⁾ 사춘기에는 생리적 발달의 변화를 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부족사회에서 다른 집단의 구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셋째, 질병·불행·실패·죽음 같은 것을 예방하고, 자기들을 해치는 모든 악마들을 내쫓으려는 미신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넷째,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보이려는 예술적인 미의 표현으로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기 위해 행한다. 즉, 성적 매력과 힘, 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행하며, 이는 신체장식을 통해 계층의 분류가 다양한 사회에서 재산과 부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도 같다.

다섯째, 신체를 자연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하였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애벌레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변장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애벌레를 잡으러 다가온 새들은 달라진 먹이감의 등허리를 보는 순간 천적

25) Victoria Ebin, 앞의 책, p.39.

의 눈으로 알고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춘다. 그 사이 애벌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애벌레의 보호색은 올빼미나 매의 눈, 몸을 움추린 뱀의 머리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변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짜낸 애벌레의 지혜는 마한, 진한 시대 바다와 가까이 살았던 남방인들이 문신을 했던 배경과도 유사하다.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기 전 사나운 바다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해룡을 몸에 그려 넣었다. 문신을 하는데 사용한 물감 또한 독충이 싫어하는 쪽이라는 식물에서 짜낸 액이었다.²⁶⁾ 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몸에 그림을 그려 넣는 풍습이 있었다.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이 옮지 않도록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고, 평안북도에서는 난산중인 산모의 발바닥에 천(天)자를 그려 넣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간난아이의 첫 나들이 때 이마와 콧등에 반드시 솔밀 검뎁이를 발랐다.²⁷⁾

보호와 안전을 위해 맨 몸에 장식하는 행위가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절박한 노력이 문신으로 나타났다. 벵골만 오리사(Orissa)주 깊은 정글 속에 사는 아디바스족은 당시 왕에게 처녀공출을 해야 했는데, 부모들은 자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딸의 얼굴에 동물, 해, 달 등의 문신을 남겼다. 그것은 최고 지배자인 자연에게 딸을 먼저 바친다는 맹세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딸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아디바스족은 축제처럼 초경을 치른 여자 아이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는 ‘초경제’를 치르고 있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문신술 자체가 규수가 익혀야 할 교양과 기예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 특히 여자들 정수리에 그려진 작은 점, 백호상(白毫相)은 순결을 지켜주고 정

26) 월간 지오, 1988년 3월호, 두산, p.24.

27) 전완길, 앞의 책, p.22.

숙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통한다.²⁸⁾

(2) 문신의 방법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보통 2가지 양식으로 나뉜다.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이 이용되고, 피부색이 얇은 종족에서는 색소(色素)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 행해진다.

상흔문신(傷痕文身)의 하나로 살을 베어 흠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 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흠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문신(瘢痕文身)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수법은 널리 퍼져 있지 않으나,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인이나 호텐 토트가 사용한다.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C. 콜럼버스 이전의 케바족 사이에 성행 했으며 멜라네시아에서는 산타크루즈 섬에서만 행해졌다. 이 섬 사람들은 얼굴과 가슴, 등에까지 상흔을 냈다. 그리고 보다 널리 보급 되어지는 상흔문신은 장식 적 또는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이다. 이는 부조(浮彫)가 된 큰 상흔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반투족이나 나일강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아메리카에서는 고대 마야인에게서 볼 수 있고, 중미의 수모 족이나 부리부리족은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상처 구멍을 불에 태운 일종의 송진 으로 덮어 바른다.

누바족의 여성은 가슴, 등,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무늬를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벤 다음 숯,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흠터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²⁹⁾ 이러한 상흔문신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으며, 주로 사춘기 초기에 만들거나 아이의 출산 후 상흔을 덧붙여 만들었다. 누바족의 남성 역시

28) 월간 지오, 앞의 책, p.p.28~29.

29) 이효진, 앞의 논문, p.57.

남성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흔 문신을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서부와 북부에 사는 토인들도 켈로이드증상의 문신을 하고 있다(그림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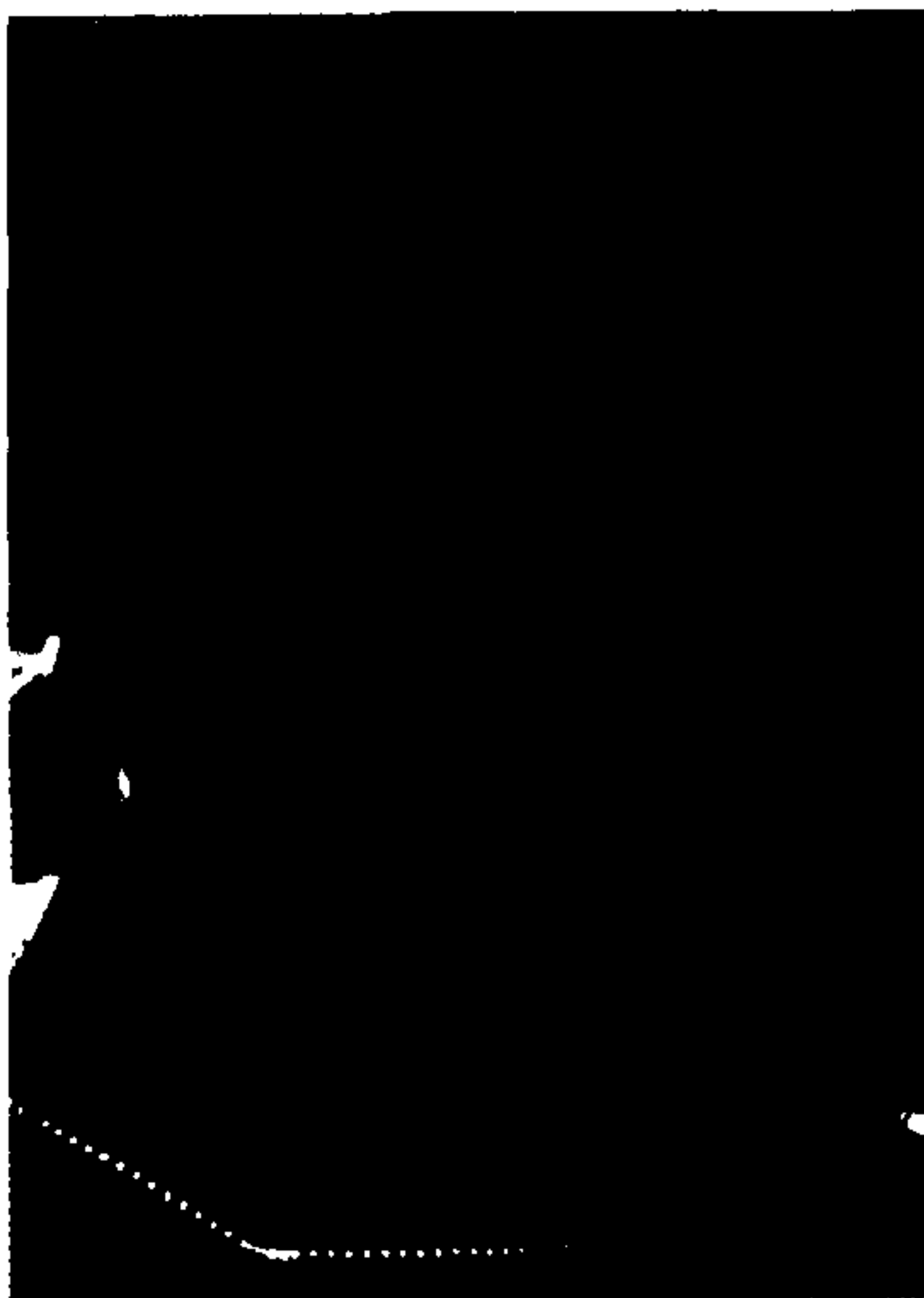


그림8. 누바족 여성의 상흔
(출처 : 신체장식, p.50)



그림9. 누바족 남성의 상흔
(출처 : Decorated Skin, p.166)

남부 멜라네시아의 뉴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별모양의 장식적 상흔을 즐겨 만들었고, 폴리네시아에서는 오직 피지 제도의 여성들이 장식 상흔을 만든다. 동인도네시아에서는 바바르섬이나 티모르 라우트의 무나족이 불에 태워서 만드는 상흔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³⁰⁾ 이처럼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 주로 상흔문신이 쓰이는 이유는 검은 피부에 색소를 사용하여 문신을 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을 써서 나타내기 보다는 피부에 입체감을 형성시켜 눈에 잘 띄게 하고 그들 나름의 미를 표현했다. 이처럼 문신은 색소를 침착시키거나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 상에 큰 고통과 함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30)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제10권, 앞의 책, p.591.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은 지워지지 않도록 일정한 색소를 피부에 물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기술은 살빛이 옅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이용되는 색채는 흑색이 제일 많은데, 청색이나 녹색, 드물게는 적색도 쓰인다.

문신을 할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는 모티브가 피부에 표시되며, 손으로 직접 붓 같은 것을 가지고 무늬를 그리던지, 아니면 무늬를 새긴 목제 스탬프를 눌러 찍는다. 유럽의 신석기 시대나 금석병용기의 유물 중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듯한 테라코타의 스탬프가 발견되었다.

피부에 모티브가 그려지면 미리 선택한 색소를 적신 바늘로 찔러 기술을 하는데, 이를 자문신(刺文身)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지역마다 다르다. 북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서는 바늘 구멍에 물감을 칠한 실을 꿰어 데생을 꿰매나가는 방법, 즉 봉문신이 행해지고 있다.³¹⁾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문신은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다. 말케사스 섬의 문신은 어디에서 볼 수 없을만큼 작품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 섬에는 문신을 할 때 'ta'라는 톱니모양을 한 인간의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날카롭고 예민한 선을 만들고 파 낸 사이에 채색을 하기 위하여 문신가들은 다양한 크기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ta'는 길이가 3인치이고 형태는 찔러서 구멍을 만들기 위한 빗 같이 작고 뾰족한 살이 여러 개 달렸고 날카로운 췌기 모양이었다. 문신을 만들 때 좀 더 작은 곡선은 새의 날개와 다리뼈를 이용하였다.³²⁾ 문신에 사용하는 물감은 특별한 견과류의 재를 태양 빛에 말려서 코코넛 기름이나 물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 검정물감을 문힌

31)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앞의 책, p.591.

32) Victoria Ebin, 앞의 책,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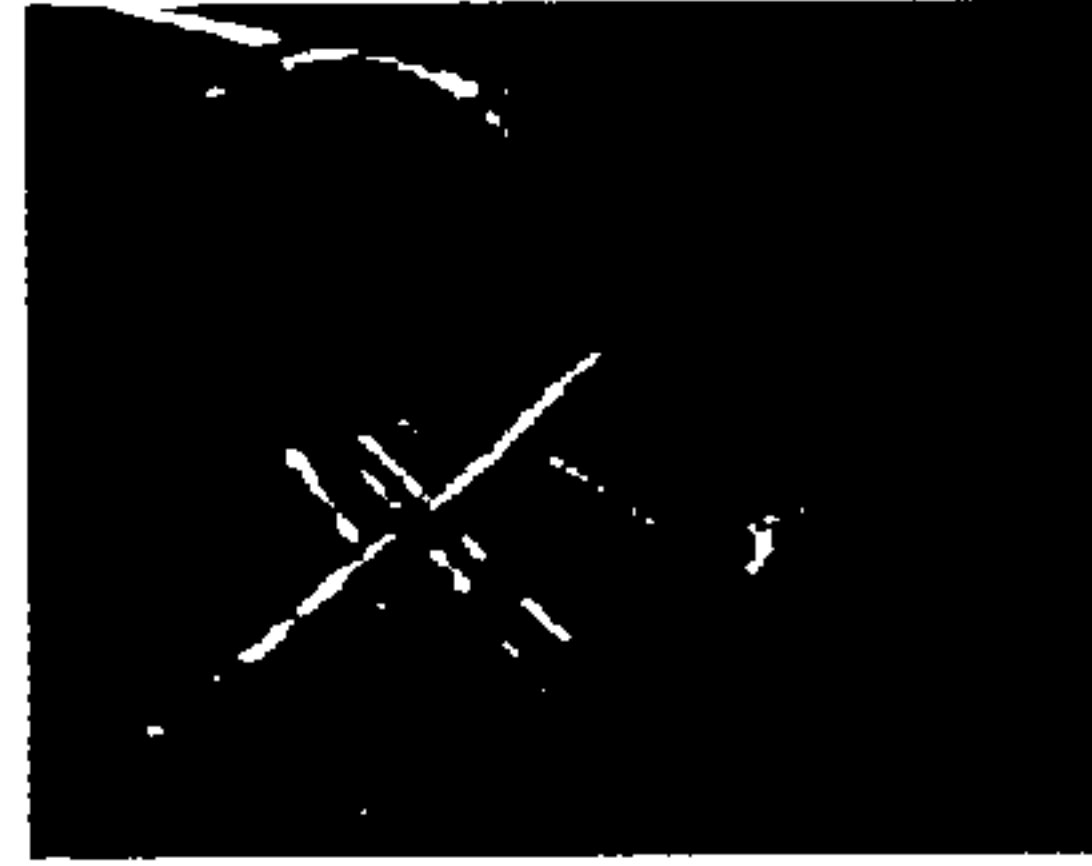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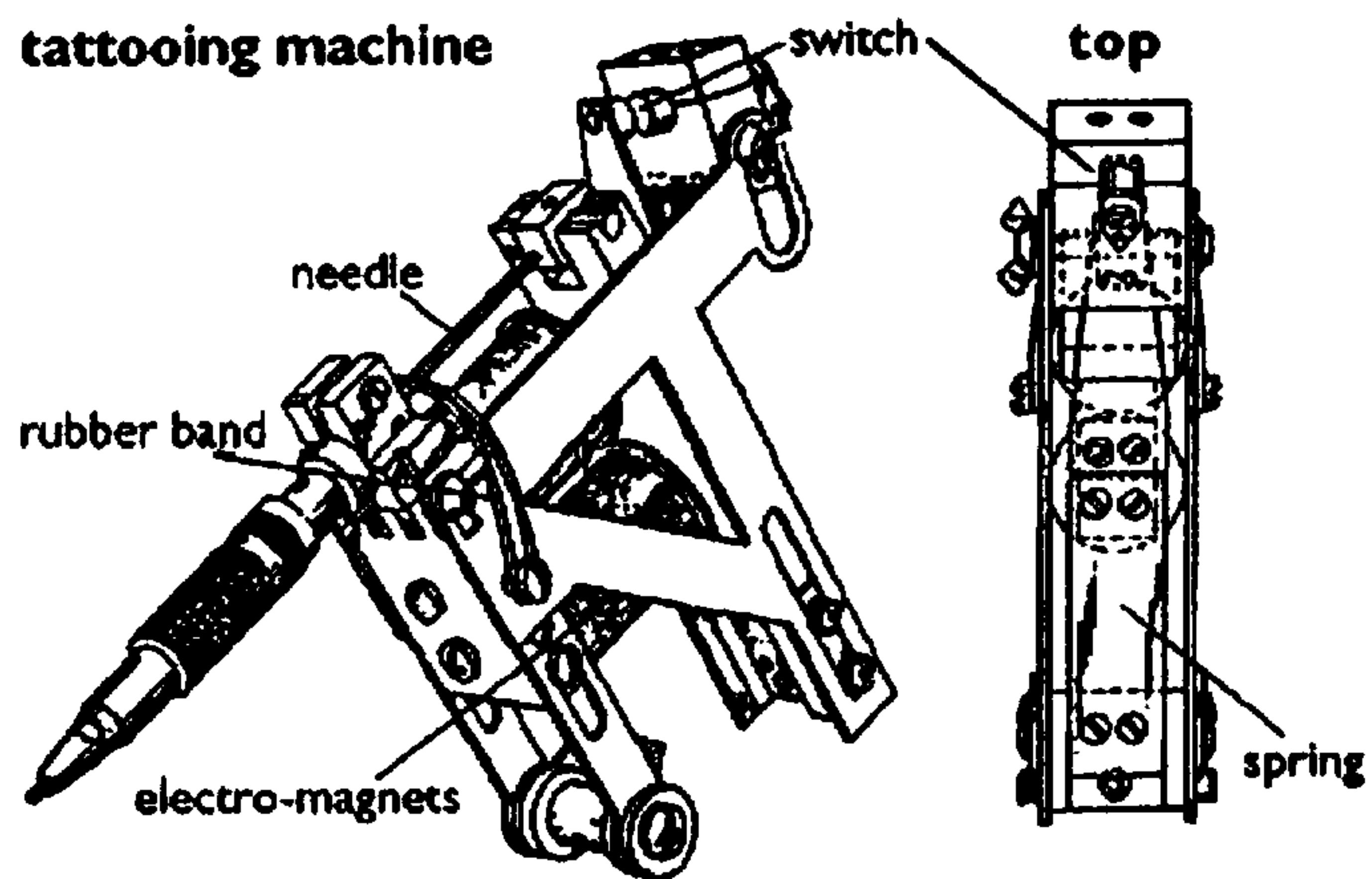
실과 바늘로 문신을 하였다. 일단 신체에 원하는 디자인을 그려서 바늘로써 피부 밑에 색소를 침착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색소는 주로 숯이나 재빛으로서 이는 나중에 푸른 빛을 띠게 된다.³³⁾

19세기 말 미국의 타투리스트인 사무엘 오레일리(Samuel O'Reilly)는 문신기계를 최초로 발명하였다. 그는 만일 손바닥만한 기계에 자동으로 바늘이 위 아래로 움직여질 수만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빠르게 문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레일리는 토마스 에디슨의 캠장치가 달린 작은 전기 모터로 된 조판기계에서 영감을 얻어 최초의 전기문신기계를 제작하였고 1891년 발명특허를 얻어냈으며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³⁴⁾ 그림 10은 다양한 문신의 도구들을 나열한 것이다. 문신을 하는 도구는 사람 또는 새의 뼈로 만들었고, 때로는 가시나 다듬은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레일리에 의해 문신기계가 발명 됨으로 인해 문신을 새기는 시간이 줄어들고, 문신받는 사람의 고통 역시 줄어들어 문신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33) Victoria Ebin, 앞의 책, p.p.83~84.

34) <http://ilovetattoo.com/history-02.htm>

전자석의 원리 (Electromagnetic Machine)



현대의 전동식 타투 머신과 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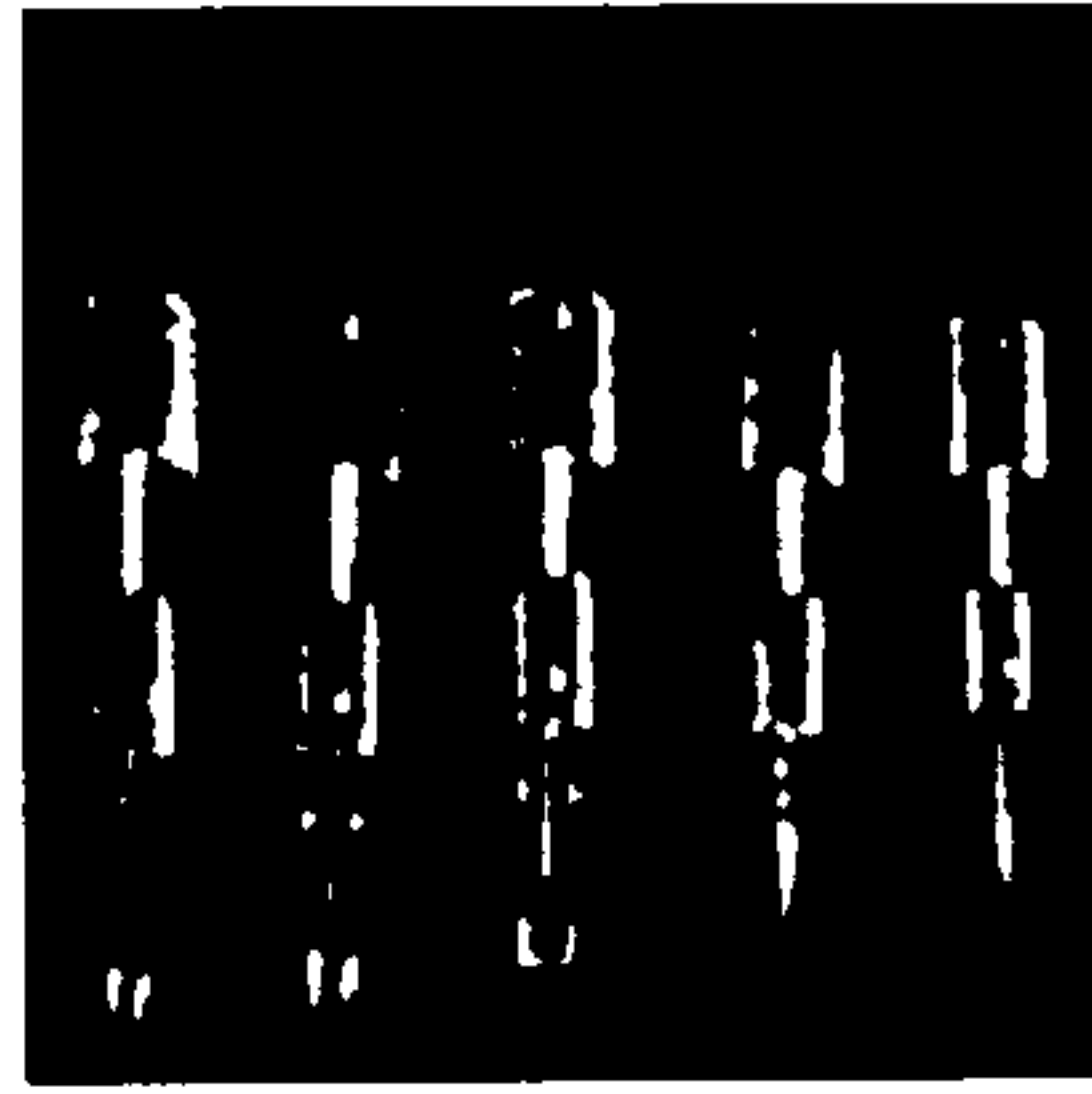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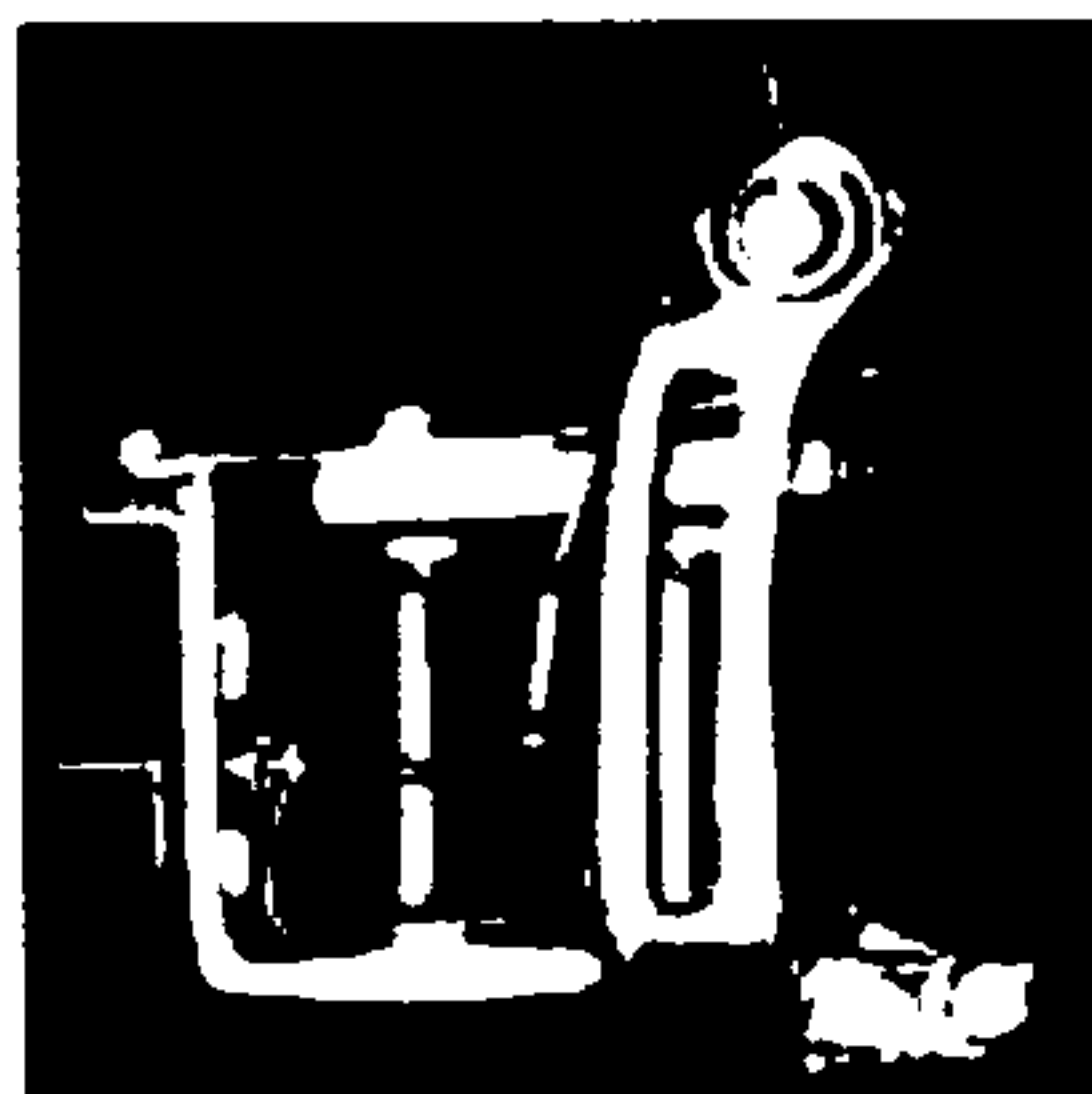


그림10. 다양한 문신의 도구들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3. 문신의 사회적 표현속성과 의미

문신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신체에 자신의 내면세계 혹은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인류에게 있어 문신은 대체로 습관적 행위, 장식, 색정적 표현, 성인의식, 용기 시험, 혼인의 표시, 전시효과, 예술적 가치, 종교적 상징물, 계급, 신분 및 지위의 표시, 특정 종족이나 집단 구성원의 상징적 표시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문신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신체장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전과를 표시하기 위해 때로는 연인들간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문신을 행하였다. 이처럼 문신은 문신한 사람의 삶을 포함하면서 개인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각 사회에 따라 나타나는 문신의 다양한 유형과 사회적 표현속성에 대해 살펴보자.

1) 문신의 사회성 표현

문신은 주술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의 미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문신행위가 보편화되어 왔으며 사람들은 문신도안이 그들을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술적 효과가 있다고 믿기도 했다.

아랍의 여러 국가에서는 문신이 주술적 기능과 함께 신체장식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문신에 사용하는 물감을 기름이나 물이 아닌 어머니의 젖을 이용하였다. 이는 인간의 젖이 가지는 풍요로움이나 너그러움, 또는 자식을 소중히 여겨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런 점이 인간에게 주술적 의미로 다가 오리라 믿었다.³⁵⁾

그림 11과 그림 12는 신체를 병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문신을 행한 경우이다. 그림 11은 병과 악령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문자를 새긴 것이며, 그림 12의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인 역시 악령과 병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얼굴에 칠을 하였다.



그림11. 예멘족의 아기
(출처 : 신체장식 p.48)



그림12.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성
(출처 : 신체장식, p.16)

그리고 주술적 목적 외에도 사람들의 지위, 신분,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신이 사용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원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을 행할 때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했던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

35) Victoria Ebin, 앞의 책, p.p.83~86.

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에 해당하며 할례, 발치, 천이 등의 신체 변형과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³⁶⁾

이처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체적인 표시는 문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신은 신체적 발전의 각 단계에서 행해지지만 특히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형태는 보통 15~20세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 감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작은 모양은 어린아이 때에 만들어지나 주로 얼굴에만 제한되며 목적은 병과 악령을 막기 위한 것이다.³⁷⁾



그림13. 사모아인의 문신시술 장면
(출처 : Decorated Skin p.33)

사모아제도의 남성은 문신을 하지 않으면 남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할례를 끝내고 16세 정도가 되면 허리에서 무릎까지, 정강이, 하복부, 엉덩이 등에 작은 갈퀴 모양의 도구로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상처를 내고 거기에 염료를 자입하였는데(그림13) 굉장한 고통과 함께 패혈증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문신이 완성되면 소년은 청년집단에 들어 가도록 허용 되었고 여성은 사춘기가 되면 미혼여성의 집단에 들어가고 이때 문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보다 간단하였다.

인도의 나가족은 성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했으며, 10세나 11세가 되면 먼저 발에 문신을 했고 이듬해에 턱, 가슴, 어깨에 문신을 했다. 즉, 나무의 조각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36) Victoria Ebin, 앞의 책, p.21.

37) 위의 책, p.47.

식물의 가시로 만든 도구로 두들기고 검정염료를 넣었다. 시술은 마을 부근의 숲 속에서 노파가 하였으며, 이때 남성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인도의 콘트족도 결혼 전의 여성이 문신을 했으며 염료로는 유연, 숯, 향료가루를 피마자 기름에 갠 것을 불에 태워서 나온 검은 재를 썼다.

마오리족에게 문신장식이 없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을 뜻했으며, 문신을 하지 않은 얼굴은 추한 얼굴로 간주되었다.³⁸⁾ 가문이 좋은 여성들은 얼굴에 문신을 섬세하게 한 남자를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이 문신은 일련의 의식을 행하면서 시작했으며, 그 사람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부족장들은 문신의 디자인을 그들의 서명으로 사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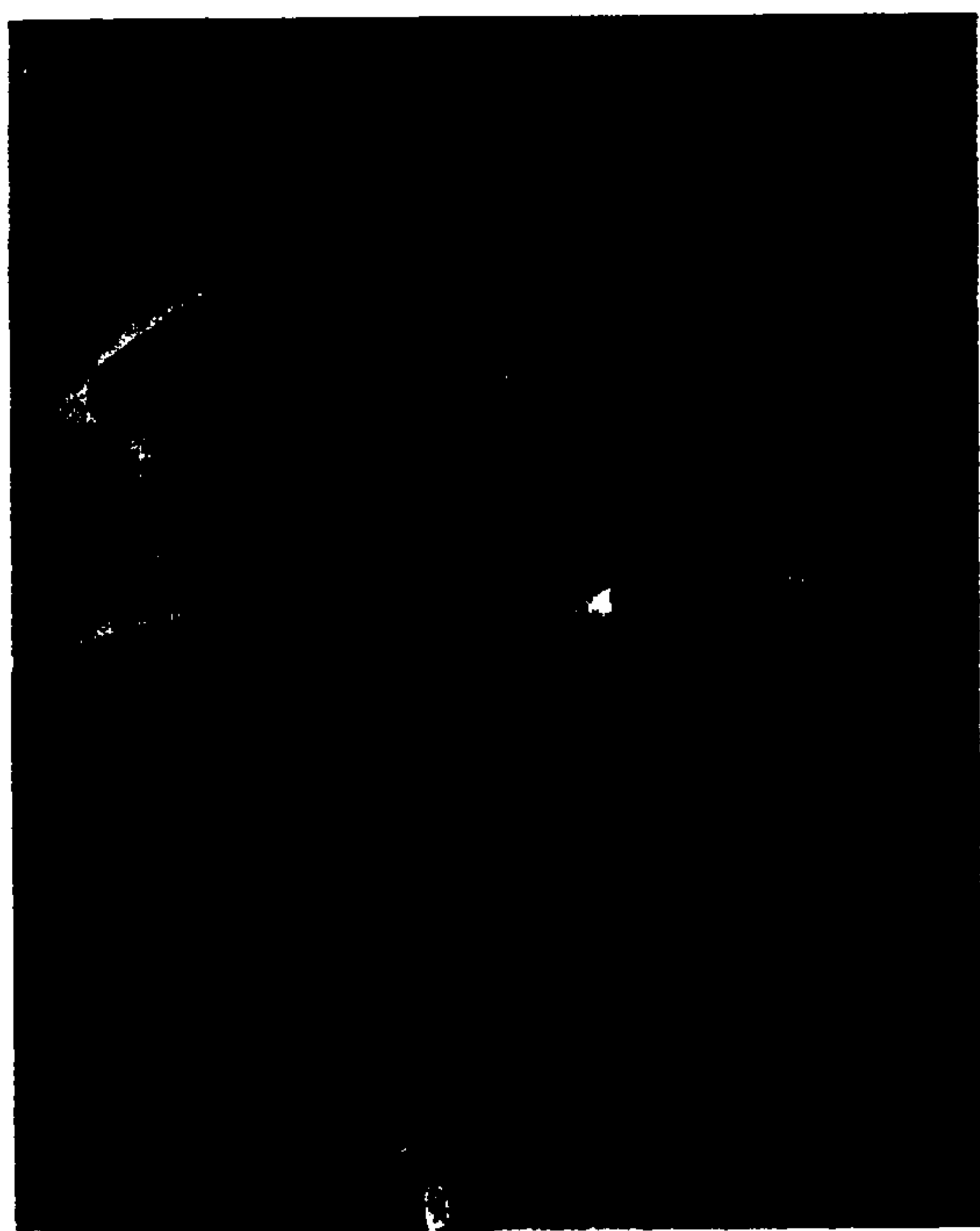


그림14. 마오리족 추장의 문신
(Decorated Skin p.97)

다. 따라서 문신의식은 개인적으로나 부족 모두에게 매우 의의 있는 행사였으며, 문신 기술자는 부족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마오리족에게 있어서 문신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으며, 특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결혼 적령기를 상징하였다 (그림 14). 마오리족의 문신은 세계 대부분의 종족들의 전통 문신법과 달리, 주된 선을 만들때에 뼈로 만든 소형의 조각칼로 피부를 깊숙히 베는 방법을 썼다.³⁹⁾

38) Don Sinclair, Decorative Art of the New Zealand Maori, Reed Books, 1964, p.76.

즉, 원하는 문신 모양을 결정한 뒤 그 문양을 피부 위에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 뼈로 만든 뾰족한 조각도를 피부 깊숙히 반복해서 집어 넣는데, 조각도로 피부를 벨 때마다 먼저 조각도의 날을 카우리 소나무의 수지등을 태워서 만든 숯 혼합물에 담근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가 아문 뒤에 남는 흉터자국이 그대로 푸른 빛이 도는 문신이 된다.

주된 선 주변의 보조 문양들은 머리 빗 형태로 된 도구의 뾰족한 끝(빗살 끝)으로 가볍게 찢어서 색소가 스며들게 해서 만든다. 문신이 수염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염을 하나하나 뽑았다.⁴⁰⁾ 문신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은 얼굴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나무 깔대기를 이용하여 유동음식을 섭취하였다. 이는 또한 성스러운 피가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⁴¹⁾

문신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 되었으며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남성들은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무릎에서 허리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주로 입술주변과 턱에만 하였으며, 붉은 입술을 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술에 푸른 문신을 했고, 드물게는 여성들도 이마나 코주변에 작은 형태의 문신들을 더하였다.⁴²⁾ 마오리족 여인들은 만약 입술이나 몸에 문신을 하지않았더라면 흰 치아와 붉은 입으로 인해서 개와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들의 얼굴에 행해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작은 선,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이마쪽으로 퍼져 나가는 곡선으로 구성된다.

39) W. J. Phillipps, Maori carving Illustrated, Reed Books, 1955, p.p.18~19.

40) Don Sinclair, The Maori in Colour, p.17.

41) Terence Barrow, Maori Art, p.83.

42) 황춘섭·정현주, 마오리족 전통복식과 문신고찰, 복식문화연구 6, 1995, p.p.257~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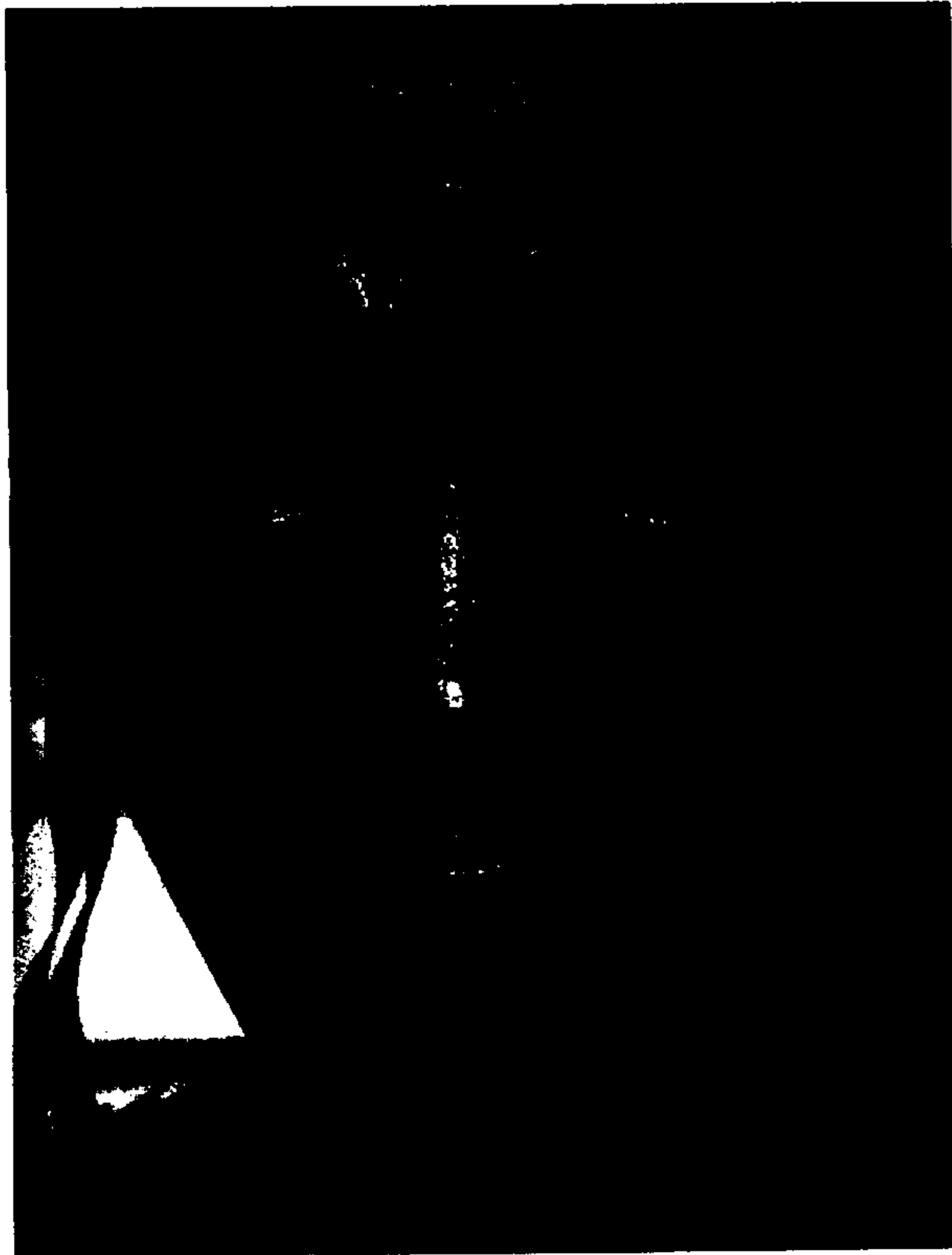


그림15. 마오리족의 문신은 불사의 상징이다.
(출처 : Decorated Skin p.99)

이처럼 마오리족의 문신은 나선형 및 곡선, 소용돌이 모양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용돌이(spiral)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용돌이는 불사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를 믿고 몸 특히 얼굴에 소용돌이 문신을 새긴다(그림15). 전설에 의하면 죽은 뒤에 혼은 몸에서 분리 되어 마귀할멈과 만나게 되는데 마귀는 소용돌

이 문신이 새겨져 있던 몸에서 온 혼에게는 ‘생명의 땅(bauro)으로 가라’는 주문으로 혼의 눈을 뜨게 하여 불사의 땅으로 편히 가게 하지만, 만일 소용돌이 문신이 없으면 혼의 눈알을 파먹어 장님이 되어 불사의 땅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오리족은 소용돌이 문신을 얼굴, 어깨, 엉덩이 등에 새긴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소용돌이는 불사를 나타내는 무늬로 현대에까지 그 의미가 이어져 왔다.⁴³⁾

문신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 낼 뿐만 아니라, 문신을 새기면서 신체에 가해지는

43)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6), 녹십자의보 제28권 제6호, 2000, p.390.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신체에 행해진 문신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그림 16). 말케사스섬의 여성들은 신체부분 중 오직 팔과 손, 복부와 등아래쪽에 한하여 문신을 행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생식기, 머리의 정수리 위로 계속되는 부분, 입과 코 안쪽, 눈꺼풀을 제외한 몸 전체에 문신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 존재하는 예술품을 과시했었고, 신체의 노출된 부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문신을 새겼다. 문신의 도안은 식물, 조개, 동물의 추상적인 도안과 함께 기하학적 도형의 모양, 즉 반정모양, 나선모양, 창살모양, 바둑판 무늬, 선모양 등 문신의 모양은 신체의 움직임에 맞게 디자인되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그림17).⁴⁴⁾



그림16. 말케사스섬의 예술적인 문신
(출처 : Decorated Skin,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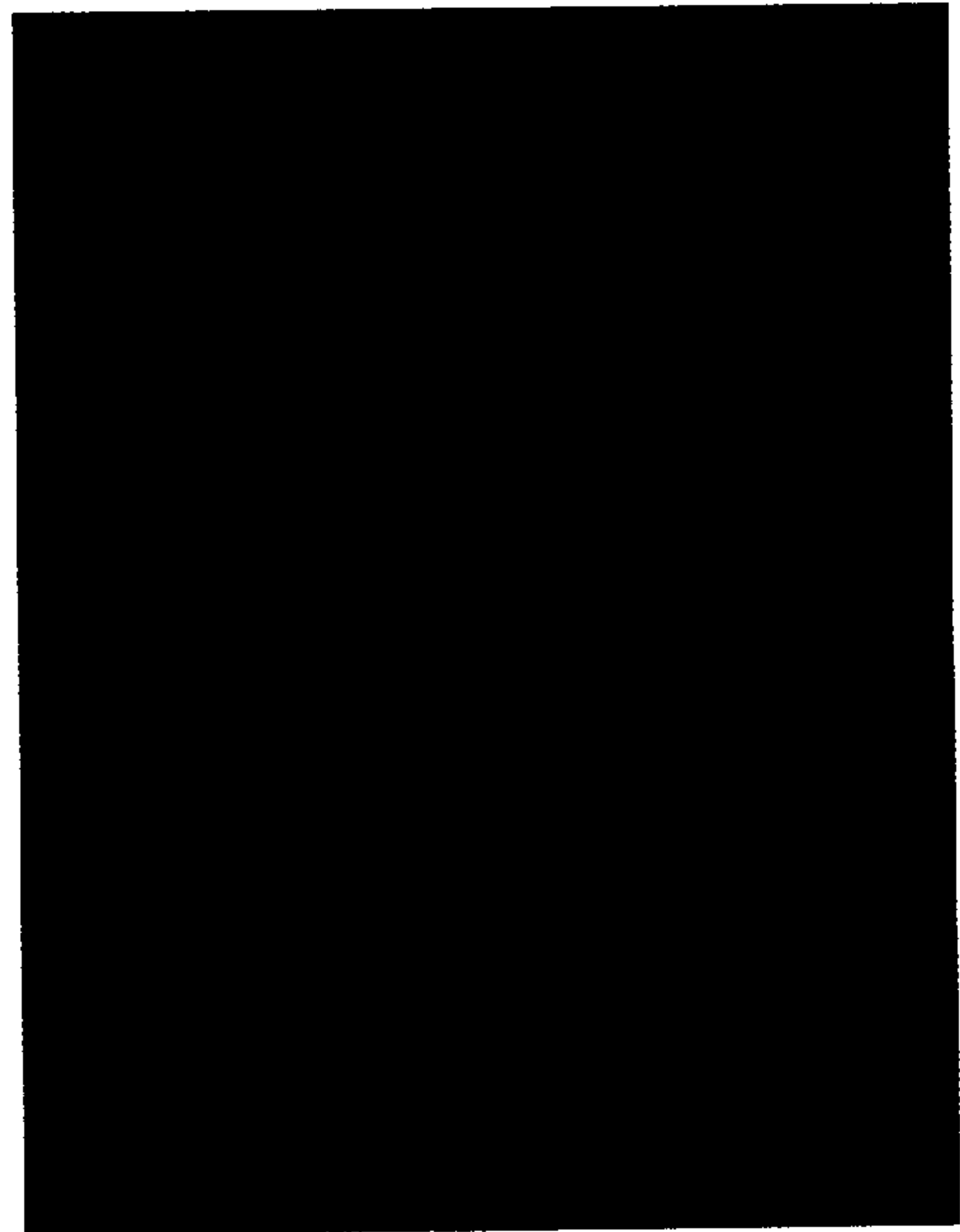


그림17. 유럽의 의복스타일을
몸에 새긴 말케사스인
(Decorated Skin, p.95)

44) Victoria Ebin, 앞의 책, p.p.88~93.

2) 문신의 범죄자 표시

한때 문신은 ‘주홍글씨’처럼 평생을 부인할 수 없는 낙인이었다. 로마에서는 범죄자와 노예에게,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유형자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겼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전과자에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죄수들에게 문신을 넣어 낙인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을 구별하고 범죄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문신을 사용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문신은 여러 범죄 유형 중 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되었다. 일반 절도자에게는 ‘절도(竊盜)’ 두 자를 새겼고, 소나 말을 도적질한 자에게는 ‘도우(盜牛)’, ‘도마(盜馬)’, ‘도살우(盜殺牛)’, ‘도살마(盜殺馬)’를 자자하였다. 세조 때에는 물건의 소재지에 따라서 글자를 달리 표기하였고, 성종 때에는 범죄자와 장물아비를 구분하였으며, 절도와 강도 또한 구분하였다.⁴⁵⁾ 혹형을 폐지한 영조 이전 까지만 해도 나랏돈이나 세금을 횡령한 관리에게는 보통 가로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글자를 문신했는데 횡령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새겼다. 연산군 때에 이르면 도망친 노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망한 공·사노비를 체포하여 남자는 왼쪽 뺨에 ‘도노(盜奴)’를 여자는 오른쪽 뺨에 ‘도비(盜婢)’를 자자하도록 하였고⁴⁶⁾ 심지어 종들이 도망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낙동이씨종(駱洞李奴)’, ‘제동박씨종(劑洞朴婢)’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하였다.⁴⁷⁾ 이처럼 자신이 거느리던 노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에 특별한 문자를 새긴 조선 시대의 문신은 양반 체제를 유지하는 노비 문서 역할을 했으며, 노비 또한 종

45) 문형진, 문신의 습속과 그 유래,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p.175.

46) 전완길, 앞의 책, p.22.

47) 문형진, 앞의 책, p.175.

신토록 신분을 바꿀 수 없었다.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자획의 넓이에 따라 바늘 10여개를 묶어서 살갓을 찢러 상처를 낸 후, 베로 그 부위를 싸매고, 봉한 후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 씻거나 빨아내서 흔적을 지우지 못하도록 매일 조사한 후, 3일이 지나 먹의 흔적이 피부에 깊숙히 새겨진 이후에 놓아 보냈다. 만약 전에 자자하였던 글자를 제거한 자에게는 곤장 60대를 때리고 다시 글자를 새겨 넣었다.⁴⁸⁾

자자한 부위는 처음에는 팔과 어깨부위에 글자를 새겨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나, 이 방법이 옷에 의해 가려지고 뉘우침 없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자 얼굴에 자자를 시행하여 주변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이런 연유에서 유래된 것으로 ‘경을 칠 놈’이라는 욕이 나왔다. 즉 경을 친다는 것은 이마에 문신을 새긴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경친다의 ‘경(鯨)’은 살갓을 쪼아 입묵을 하는 문신을 뜻한다. 그것을 새길 때의 고통이 심하고 또 새겨지면 범죄자 낙인이 찍혀 평생을 지내야 하니 일종의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는 형벌인 셈이다. 그래서 ‘경을 칠 놈’이라 하면 가장 나쁜 욕이 되었던 것이다.⁴⁹⁾

이처럼 신체의 손상을 가장 큰 불효요, 수치로 여겼던 사회적 관념 하에서, 살갓에 상처를 내고 글자를 새기는 문신은 가장 부끄러운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농경 사회의 필수품이었던 소와 전쟁에 활용되었던 말은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였기에 소나 말을 훔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치욕적인 문신을 새겨 넣었다. 또한 관물을 훔치고 사람을 상해하는 강도에 대해서도 자자형에 처했다.

조선시대 문신 운영실태를 보면 태종(太宗)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태종

48) 문형진, 앞의 책, p.175.

49)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1), 녹십자의보 제28권 제1호, 2000, p.p. 6~7.

(太宗) 이후에도 한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책되기도 하였다. 자자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절도범이 자주 창궐한 세종(世宗) 때였다. 세종 25년 양쪽 뺨에 글자를 새기는 경면(黥面)이 실시되었으나, 이듬해 세종 스스로가 너무 잔혹하다고 판단하여 경면을 정지시켰고, 단근형(斷筋形)과 유배형이 자자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근형과 유배형만으로는 도둑을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조 11년 경면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성종 이후부터는 경면형이 주류를 이루었다.⁵⁰⁾ 자자형에 사용된 글자도 다양하여 훔친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사람의 상해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새겨졌고, 노비 또한 재산으로 인식되었기에 도망간 자 뿐만 아니라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얼굴에 노비임을 표시해 두었다. 절도행위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도둑을 근절할 수 없게 되자,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경면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얼굴에 글자가 새겨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굶은 일을 해 주고 밥을 얻어 먹는 거지생활을 하였다. 자자형이 활성화 된 이후 거지의 대부분은 얼굴에 글자가 새겨진 범죄자들이었다.

3) 문신의 연정의 표시

위의 경우처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문신을 사용했지만 때로는 사랑의 결속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는데, 이를 연비(聯臂)라고 한다.

조선 성종 때 기생으로 유명했던 어우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로 그녀는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내들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5~6명의 이름을 팔에 새겨 넣었

50) 문형진, 앞의 책, p.p.182~183.

다. 이규태의 <한국인의 민속문화>를 보면 재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게된다. 구한말 한강 밖 노량나루에 살았던 대석이라는 노처녀가 문안으로 시집갔는데, 첫날밤 웃저고리 벗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를 미심쩍게 생각한 남편은 어느날 밤 곤히 잠든 부인의 저고리를 벗기고 팔을 보았더니 연비입묵된 사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들통나 부인은 문중에서 불지짐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 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맹세하는 연비 문신을 하고 시집 옴으로서, 시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의 대가였다.⁵¹⁾ 이런 예들을 볼 때 조선시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연비가 상당히 폭넓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4) 문신의 집단 표시

문신은 대개 불건전성, 범죄성향, 반사회적 성향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새기고 있어서 문신은 인격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문신소유자들 대부분은 충동적이며, 사회적응이 곤란하고,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문신에 관해 사회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세중의 논문⁵²⁾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대개 청소년 후기, 초기 성인기에 많이 새긴다. 또 집단 내에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많이 새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문신에 대해 사회적인 편견이 있으며, 인격장애자에게서 문신을 더 흔히 볼 수 있다. 역동적으로는 문신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남근기 상징으로 해석되며, 리비도가 공격적으로 직접 표현되는 것이라 한다. 오세중 연

51) 이규태, 한국인의 민속문화 3 - 우리민속문화의 정체성, 신원문화사, p.p.202~203.

52) 오세중, 문신을 소유한 장정들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대한군진의학학술지 제25권 제1호, 1994, p.p.130~139.

구의 결과들을 보면 문신은 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 청소년기 비행, 범죄, 가정과의 불화, 부모의 무관심 등과 연관이 있다.

문신을 새기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도구가 있고, 색채 문신을 새기기도 하나 일반인들은 통상 바늘 끝에 실을 감고 실에 먹물을 충분히 묻혀 바늘 끝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그 상처 속으로 먹물이 스며들도록 한다. 대개 피부 표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 상처를 낸다. 문신을 새긴 부위는 주로 좌측 팔에 많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문신을 새기기도 편하고 문신을 새기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등과 가슴에 문신을 많이 새기는 것은 전신나 과시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신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한자로, 이 중 일심(一心)이나 참을 인(忍)자가 많았고 그 외에도 충(忠)·필(必)·애(愛)·사(死)·불(佛) 등이 있었다. 일심(一心)은 글씨 자체가 쉬울 뿐만 아니라 집단 맹세 의리 등과도 연관이 되므로 이 글씨를 새긴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인(忍) 역시 조직 생활, 교도소 생활 등과 연관 되는 글자로 볼 수 있다. 동물 중에는 용, 호랑이가 많았는데 이는 용, 호랑이를 경외하는 우리 민족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용맹스러움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생각된다. 그림이나 표시 중 해골, 칼, 전갈, 일본 무사, 도끼, 상어, 독수리등은 거칠고 위협적이며 남성다워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⁵³⁾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 해 볼 때 대체로 문신은 낮은 교육 수준, 좋지 못한 사회 경제 능력, 부모 상실, 부모의 애정 결핍, 열악한 가정 환경과 성장 환경 등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형태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신을 소유한 이들이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불건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다.

53) 오세중, 앞의 책, p.p.130~139.

우리 나라 문신 소유자들은 거의 반이상이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문신을 새겼다. 주로 가슴이나 팔뚝에 호랑이가 포효하고,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 앉는 모습, 담배대와 갓, 찌리를 튼 뱀, 승천하는 용 등의 그림을 가장 많이 새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이나 호랑이 등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물 문양이 자주 사용 되는 것은 집단의 성격과도 관계가 깊다.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규칙과 서열이 분명하고, 결속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표시가 필요했다. 주로 용맹스럽고 거친 이미지의 문양을 기록하면서 혈맹과도 같은 관계를 다짐한 것이다. 특히 결속 정도나 용맹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슴이나 팔뚝 등 잘 보이는 곳에 새겼다. 상대방의 몸에 문신을 새겨 주면서, 또는 새김을 당하는 고통을 참으면서 서로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다. 문신을 새긴 연령은 13~25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창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을 때인 이들은 문신이라는 육체의식을 통해 고통을 공유하고 두려움도 잊는다.⁵⁴⁾ 이는 원시종족의 문신성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원시종족 역시 성년식 때 문신을 신체에 새기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성인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문신은 불건전한 행위로 여겨지며, 청소년기에 새긴 문신을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5) 점상문신

점상문신이란 팔의 안쪽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점 같은 형태를 지닌 문신을 말한다. 이 문신은 1930년대 한국여성들에서 유행했다. 점상문신은 18세기 말에도 행해졌으며, 이는 이규경이 기록한 「오주연문 장전산고(五洲衍文 長錢散稿)」

54) 월간 지오, 앞의 책, p.p.28~29.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우리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결의를 할 때 서로의 팔뚝을 찔러 검은 점을 놓으며 그 푸르기는 명과 같다. 이로써 잊지 않는다 하니 모두 버려야 할 악습이다”라고 한탄하였다.⁵⁵⁾

직경 2~6밀리미터 크기인 점상문신은 살결이 부드러운 부분에 먹칠한 바늘을 꿰어 피부를 통과시켜 만든 것으로 푸른 색깔을 띤다. 여자들이 지닌 점상문신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말해준다.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고, 조기 결혼이나 일부종사를 강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뒤늦게 사춘기를 보낸 여성들의 정신적 생물학적 욕구는 억압되기 일쑤였다. 길쌈이나 품앗이를 통해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이들은 가슴 속 깊은 곳의 억눌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동병상련의 여성들은 억압적인 환경을 벗어나고픈 욕구를 의존적인 방식으로 충족시켰다. 그 방식 중의 하나가 점상문신이다. 그들의 노동수단인 바늘은 좋은 도구였고 서로의 몸에 남겨진 흔적은 일치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였다. 여성들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팔 앞쪽에 새긴 이 작은 점을 두고두고 들여다보면서 잠시나마 해방감을 누렸다. 이처럼 여성들은 서로에게 점상문신을 새기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억압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6) 자아표현과 문신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나 억눌림 같은 긴장 상태에서 해방될 목적으로 문신을 한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 끝에, 혹은 타인을 향한 공격심을 남에게 발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해친다. 불쾌감과 폭발 직전의 긴장 상태를 문신을 통해 해소하고 통쾌한 정서 상태를

55) 문형진, 앞의 책, p.175에서 재인용.

이루기 위해 자해자들은 문신을 택한다. 이러한 자학적 쾌감은 문신을 새기는 육체적 고통에서도 오는데 얇은 나뭇가지로 몸을 세게 내리쳐 찢어진 살 틈에 동물 피를 넣어 몸에 그림을 만드는 말케사스 원주민의 문신 풍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문신을 통하여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받을 때의 고통도 크지만, 문신 완성 후에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문신소유자에게 아주 큰 만족감과 함께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이처럼 살을 쪼아 글과 무늬를 새기는 문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그림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림과 문신이 구별되는 까닭은 붓 대신 바늘이 사용되고, 몸이 캔버스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신은 곧잘 자해나 범죄,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연상으로 이어진다.

원시사회에서는 문신은 생물학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인정의 수단으로서 문신이 사용되어졌고, 이 사회에서 문신은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고 신성한 행위였다. 그러나 문신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영속성으로 인해 범죄자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문신은 저속하고 부정적인 행위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집단이 자신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문신을 소유하면서 일반인에게 있어 문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신은 사회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신체에 행해져 왔다. 문신은 각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모두 달랐으며, 사회구성인의 인식 또한 달랐다. 어떤 사회에서는 아주 숭고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어떤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폭력적인 행위로 바뀌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가지는 역사적 인식은 각 사회 구성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 변형된다. 특히 문신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문신은 사회적, 법적 금기 속에 갇혀 버렸다. 일반인들에게 문신은 영화 속 등장 인물의 폭력 전과를 나타내는

표시나 문명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오지인들의 원시적인 장식 정도로 받아들여
질 뿐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신의 어두운 역사가 최근 달라진 미의식과 함께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Ⅲ.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정체성

문신은 한 마디로 '인내의 예술'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신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문신을 해 주는 사람 역시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체에 큰 문신을 새길 경우 전문가라 할 지라도 20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체에 마취 없이 행해지는 문신 작업은 신체에 큰 고통을 줌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작업 밖에 할 수가 없다. 가장 대중적인 트라이벌 문신을 팔뚝에 할 경우 보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문양을 고르는 일로서, 자신의 몸에 새겨져 영원히 남는 것이므로 문양의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신의 소재는 한정성이 없다. 다양한 문양이 신체에 새겨진다. 문신은 현대에 와서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신의 문양은 나라별·스타일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신의 문양이 가지는 상징성도 매우 다양하다,

문신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꺼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서구에서는 문신 경연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문신을 소재로 한 영화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서구에서 문신은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신체에 행해지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이름이 있듯이 신체에도 자신만의 문양을 새겨 신체에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서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제 문신 행위는 단순히 남을 제압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새기기 보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아가 나를 찾는 예술적 행위로 발전하고 있다.

신체예술로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신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보고, 전통 문양의 상징성 및 심리적 의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1. 문신의 종류

현대에 와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문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신의 종류는 지역별로 나눌 수 있으며, 스타일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다.

1) 나라별 구분

(1) 미국

약 150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문신으로 특히 군인이나 선원 등에게 유행되어진 문신이다. 전투의 긴장감, 긴 항해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참전 복무의 기념 등으로 손바닥만한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행해졌다. 국군의 파월로 미군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참전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장병에 까지도 문신이 유행했던 것 같다.⁵⁶⁾ 미국식 문신은 한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더해 나가는 것이다. 각각의 문양들 사이의 위치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화보다는 사랑, 죽음, 전쟁, 가족 등의 근원적인 주제로 특징지워진다(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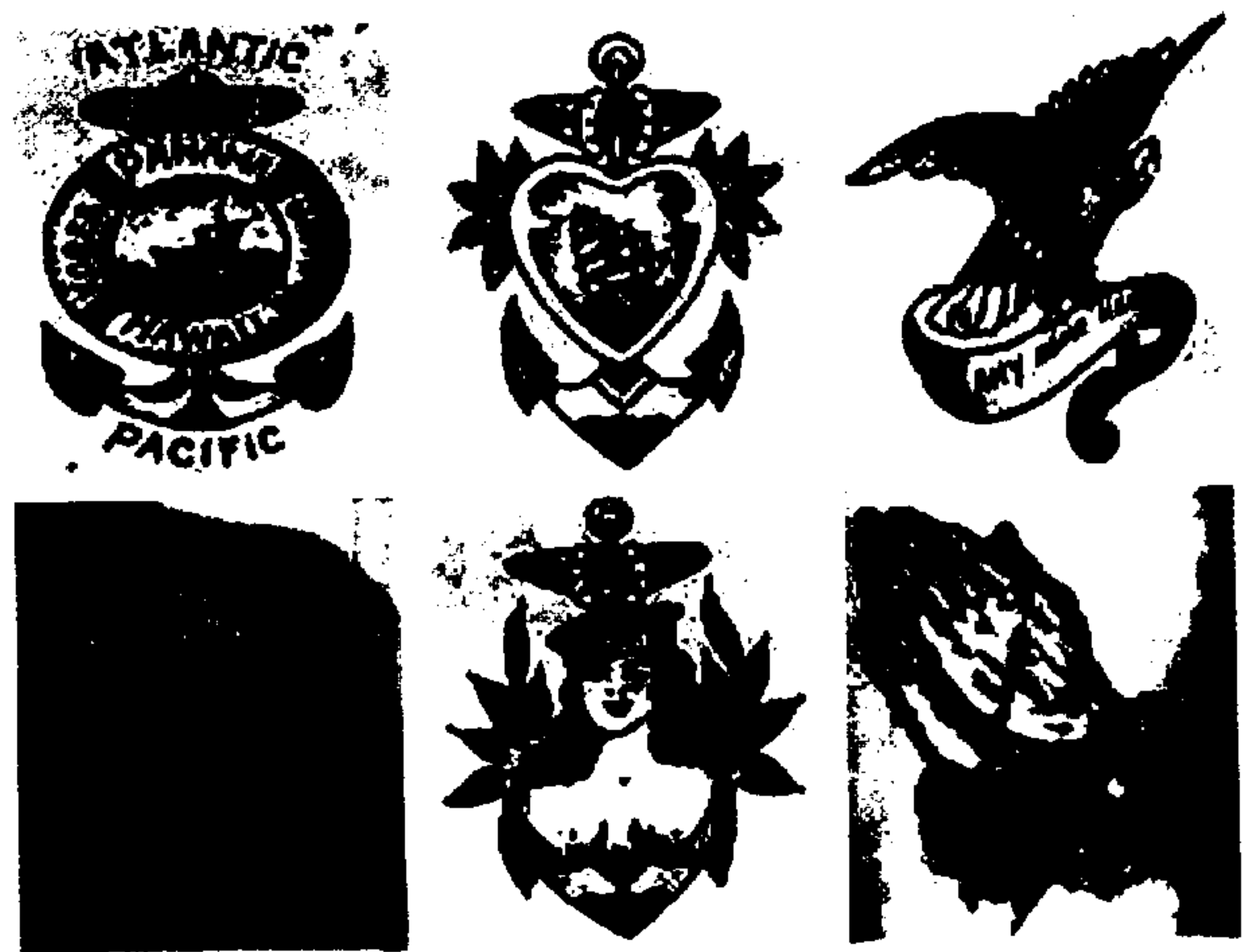


그림18. 전통적 미국식 문신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56) <http://www.taegutattoo.com/>

(2) 일본

중국 고전 소설 중 하나인 수호지에 나오는 108명의 영웅들을 목판화로 제작한 구니요시의 삼화는 일본전통문신의 디자인에 있어,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다. 삼화에 그려진 그림은 대체로 무사들의 이야기나 용, 잡신, 도깨비등이 많이 나온다(그림19). 이런 삼화를 바탕으로 전신문신을 한다(그림20). 동양문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문신은 잉어라든지 용, 모란과 같은 토속적으로 길하다고 알려진 동물이나 꽃등을 주로 하여 파도나 구름무늬의 배경을 문신한다. 세계적인 동양문화의 붐과 함께 서구쪽에도 오랜 역사로 세련되게 다듬어진 일본풍의 문신이 인기를 끌고 있다.⁵⁷⁾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일수도 있고, 민족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레이스리스(raceless)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19. 문신문양스케치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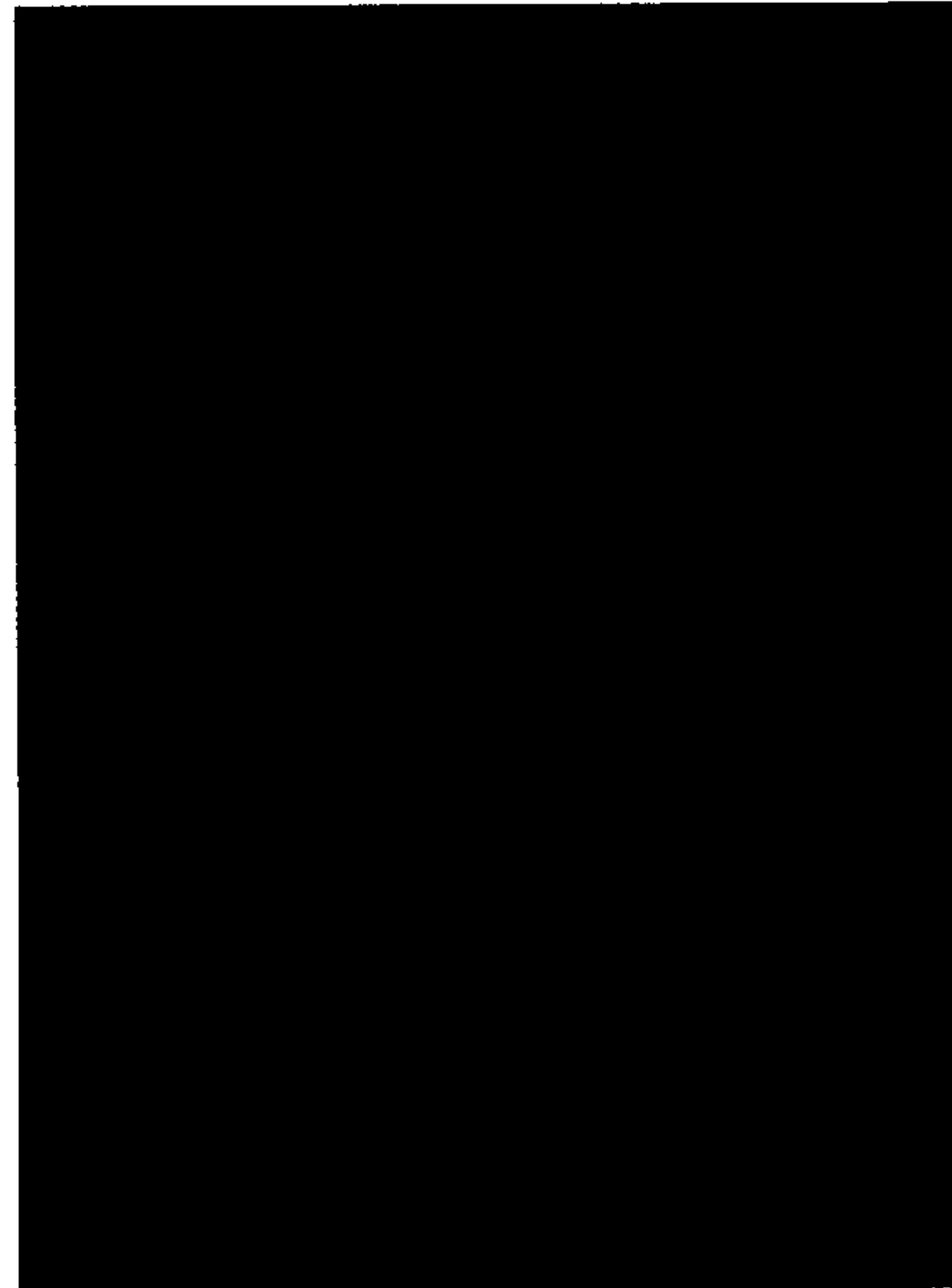


그림20. 구니요시의 삼화를 문신한 모습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57) <http://www.taegutattoo.com/>

(3) 한국

문신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문신은 비교적 작은 크기로 행해지며, 이불 바느질에 쓰이는 일명 대바늘과 먹물 연탄등을 많이 사용한다. 소재도 다양한 편은 아니어서 주로 그리기 쉬운 장미라든지 一心, 友情, LOVE 등이나 개심선언 등을 새긴다.

2) 스타일별 구분

아래의 스타일별 구분은 유럽 및 미국식 문신에 있어 주로 쓰이는 구분법이다.

(1) 트라이벌 (Tribal)

트라이벌(tribal)이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이며 자기 충족적인 무문자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 즉 부족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기하학적 모양이며, 대상을 단순하면서도 장식화한 스타일로 부족적, 주술적인 문양의 발전적 형태이다. 폴리네시아, 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문신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의 경우 검정색 기하학적 넝쿨모양의 힘있고 아름다운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며⁵⁸⁾, 아즈텍, 마오리, 켈틱, 토템계열 등의 종류가 있다. 트라이벌은 그 의식성과 특유의 분할감, 곡선미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되어진다(그림21,22).

58) <http://tattoonet.com.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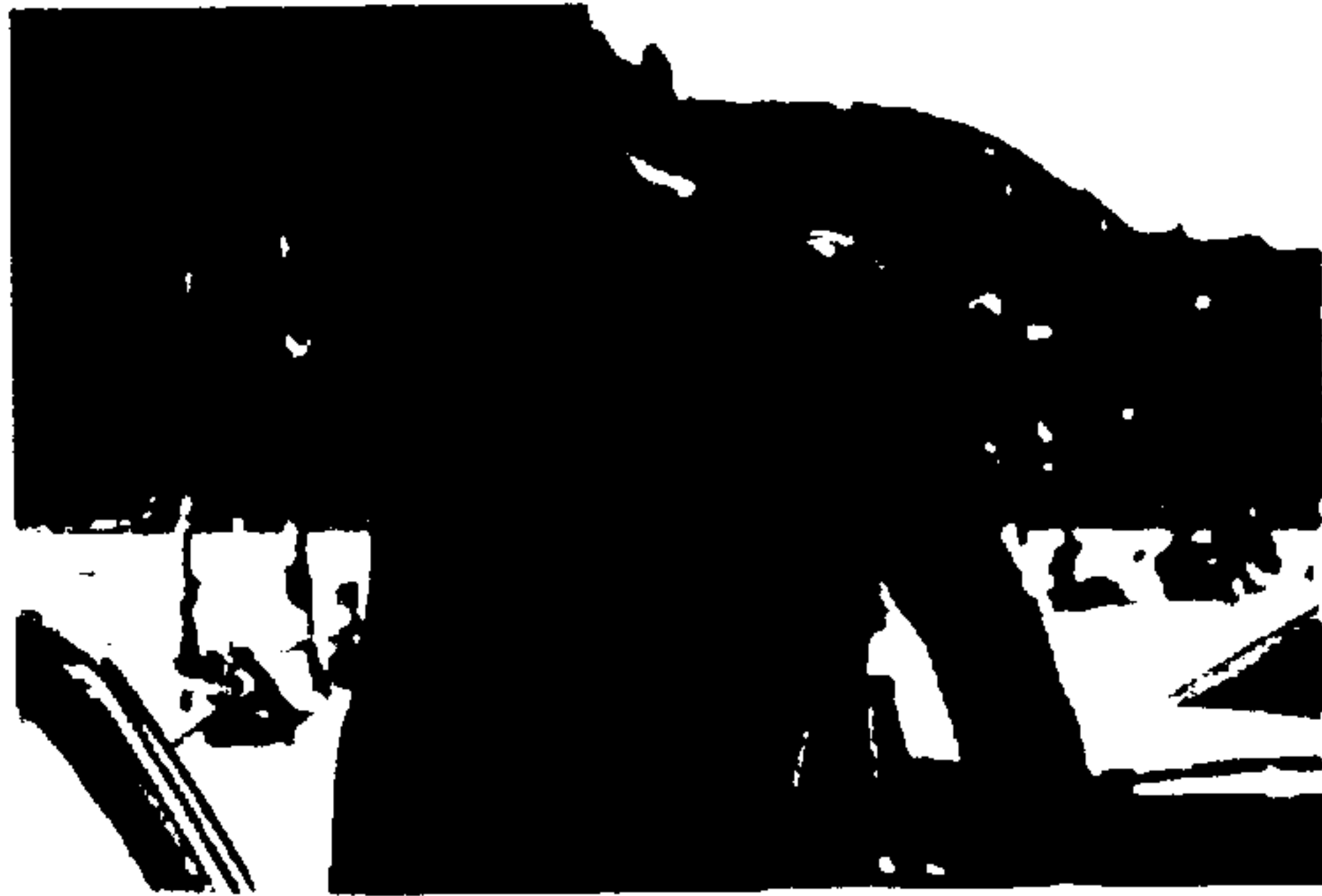


그림21. 조지클루니의 트라이벌 문신
(출처 : <http://ftp.londonfashionclub.co.kr>)



그림22. 팔에 새긴 트라이벌
(출처 : <http://tattoonet.com.ne.kr>)

(2) 블랙 앤그레이 (Black & Gray)

검정색만으로 명암의 차이를 이용한 컬러링 스타일로 주로 정교한 초상이나 극사실적 디자인 등의 묘사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회화적인 느낌으로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정교하고 음영의 처리를 극대화 해서 문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그림23).⁵⁹⁾



그림23. 극사실적 문신의 다양한 예
(출처 : <http://www.blackpia.com/>)

(3) 트래디셔널 (Traditional)

극히 개인적이고 본인을 대표할만한 그림이나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59) <http://tattoonet.com.ne.kr/>

신념이나 소속집단을 상징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그림24).



그림24. 개인의 신념이나 소속집단 표시의 문신
(출처 : <http://www.blackpia.com>)

(4) 바이오미체니컬(Biomechanical)

주로 SF적인 요소가 많은 디자인으로서 진짜 피부 안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초현실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벗겨진 피부 안으로 보이는 실제 위치의 골격이라던가 장기 등이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한다.⁶⁰⁾ 그림 25, 그림 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벗겨진 피부 안의 모습을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서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림25. 초현실적 구성의 문신
(출처 : <http://www.sussas.com>)



그림26. 인간의 신체를 로봇처럼
형상화 한 문신
(출처 : <http://www.moonsin.com/>)

60) <http://www.moonsin.com/>

2. 문신에 나타난 전통 문양의 상징성

인체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한계는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문신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나타내기도 하며, 자신을 보호해줄 대상으로서 문신을 새기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문신을 통해 맘껏 발산시키기도 하고 인체의 아름다움을 문신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몸에 새겨지는 문신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은 한층 더 문양을 선택하고 그리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본다. 문신에 나타나는 전통 문양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힘과 성취의 상징 - 용(龍, Dragon)

용은 복잡한 의미를 가진 보편적인 상징이다. ‘날개 달린 뱀’인 용은 뱀과 새가 결합된 합체이다. 일반적으로 용은 동양에서는 은혜 깊은 하늘의 존재이지만 서양에서는 지하에 속하는 파괴적인 악이 된다. 극동에서 용은 초자연적인 힘, 지혜, 강함, 숨겨진 지식, 생명을 부여하는 강이나 바다의 힘을 상징한다. 용은 천자(天子)로서 황제의 표지이며, 또 그를 추종하는 고귀한 현자의 표지도 된다.⁶¹⁾

동양문화에서 표현되어지는 용은 서양 중세의 상상 속의 무시무시한 괴물과는 달리, 힘과 선의 수호신이다. 이런 용의 개념은 중국에서 형성 되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중국에서 최고의 신성과 권위를 상징하게 된 용은 한·중·일에서 동일한 의미로 자리잡아 동양인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그

61) J. C. 쿠퍼, 이윤기역,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1, p.110.

림27,28).

현대사회에서도 용은 길상으로서 큰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이집트, 시리아, 유대인과 서양의 신화에 등장하는 용은 거의 바닷속의 암흑세계에 살고 죽음이나 죄악과 관계가 깊은 괴물이다. 유럽 일부에서는 용은 땅속에 살면서 인간의 재화를 지켜주는 성수로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크리스트 교를 통해 유대인에게 전파 된 용은 성자의 이야기와 결부 되면서 ‘성 조지의 악룡 토벌’ 전설 등으로 악물(惡物)을 상징하게 되었다. 서양에서의 용은 가뭄과 서리 등으로 피해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림27. 용문신
(출처 : <http://www.sussas.com>)



그림28. 힘과 성취를 상징하는 용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2) 인내와 용기의 상징 - 잉어(鯉魚, Carp)

잉어는 용종(龍種)으로,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눈병을 앓는 일두삼미(一頭三尾)의 잉어를 기둥이나 방문에 그려 붙이고, 그 눈에 바늘이나 못을 박으면, 눈병이 치유된다고 믿었다. 동양문화에서는 이득과 의지를 뜻하며, 일본에서는 사랑과 신의 사자를 의미한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나이지리아, 콩고에서 할례를 받은 소녀들은 잉어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수태능력을 가졌음을 알렸다⁶²⁾. 그 외에도 잉어는 200년 이상을 살기도 하여 장수를 상징하며, 물속에 나와서 오래 살고, 거센 역류에 도전하는 힘이 있으므로 인내와 용기를 상징한다(그림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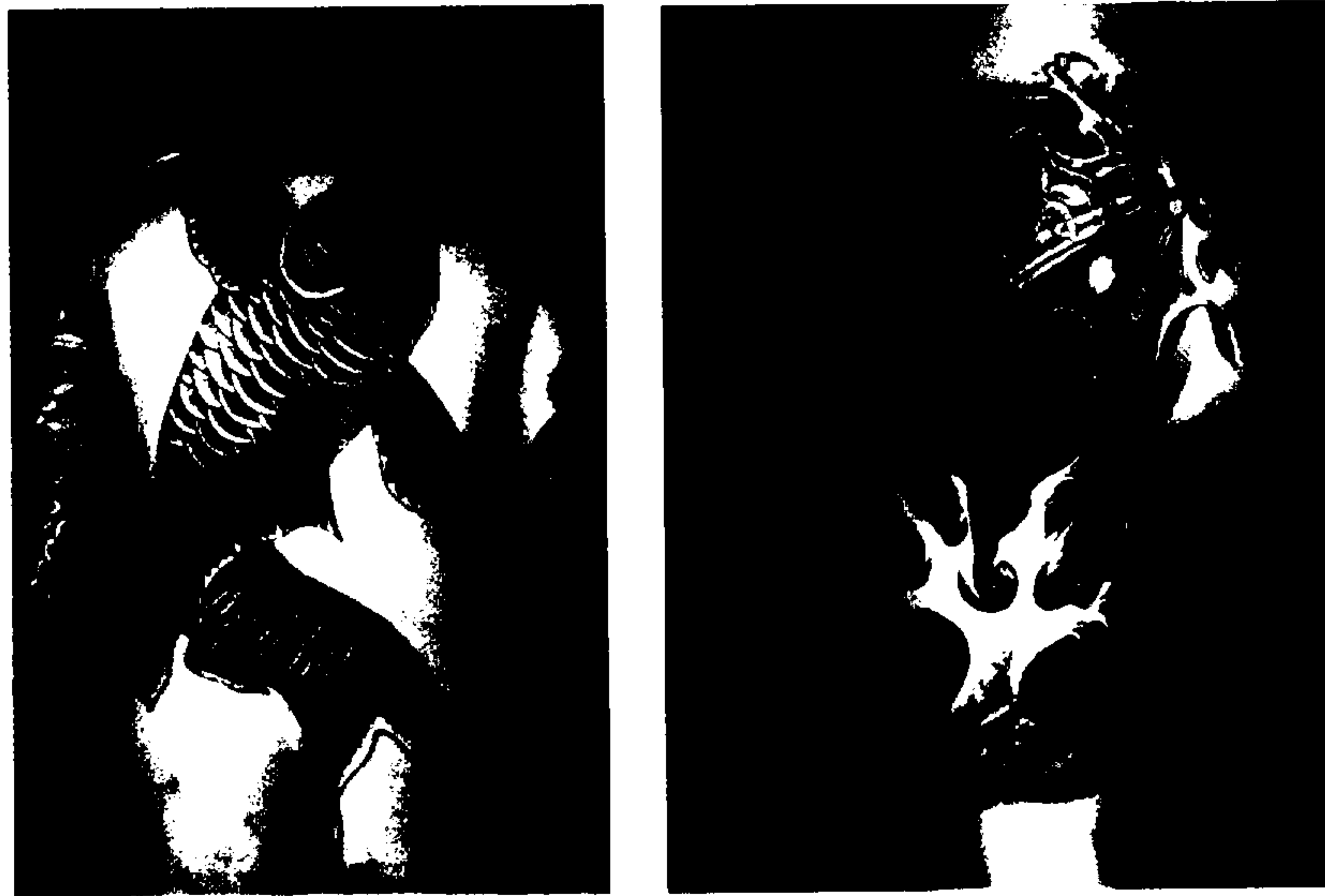


그림29. 입신출세 및 인내와 용기를 상징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6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제1권, 두산동아, 1992, p.509.

3) 용맹의 상징 - 호랑이(虎, Tiger)

호랑이는 병귀나 사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호랑이 그림이나 호(虎)자 부적, 단오에 궁중에서 나눠 주었다는 속으로 만든 호랑이에서도 이 같은 뜻을 볼 수 있다. 말라리아에는 호랑이고기를 삶아 먹거나 호랑이 그림을 환자의 등에 붙였으며, 콜레라는 호랑이그림을 입구에 붙여 막았다. 독감에는 범왔다는 소리를 3번 외쳐 도망가게 했다. 그래서 호랑이는 벽사진경(僻邪進慶)⁶³⁾을 상징한다. 그리고, 유교에서 호랑이는 인간의 효행에 감동 받아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 동물로 표현된다. 이것은 호랑이를 효와 보은의 동물로 묘사함으로써 유교적 가치관의 전범으로 만든 예이다. 호랑이는 악귀를 쫓을 수 있으므로 용맹의 상징이고, 무덤의 호석으로 쓰이며, 신들이나 효자 소년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⁶⁴⁾ 역사와 문학에서 호랑이는 주로 열정, 성스러움, 심판자, 고독한 지배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초자연적 용맹성, 강력한 조절자, 종교적 본능, 신령, 희생과 헌신의 아니마(animua), 신성한 지도자 혹은 매개자의 상징이다(그림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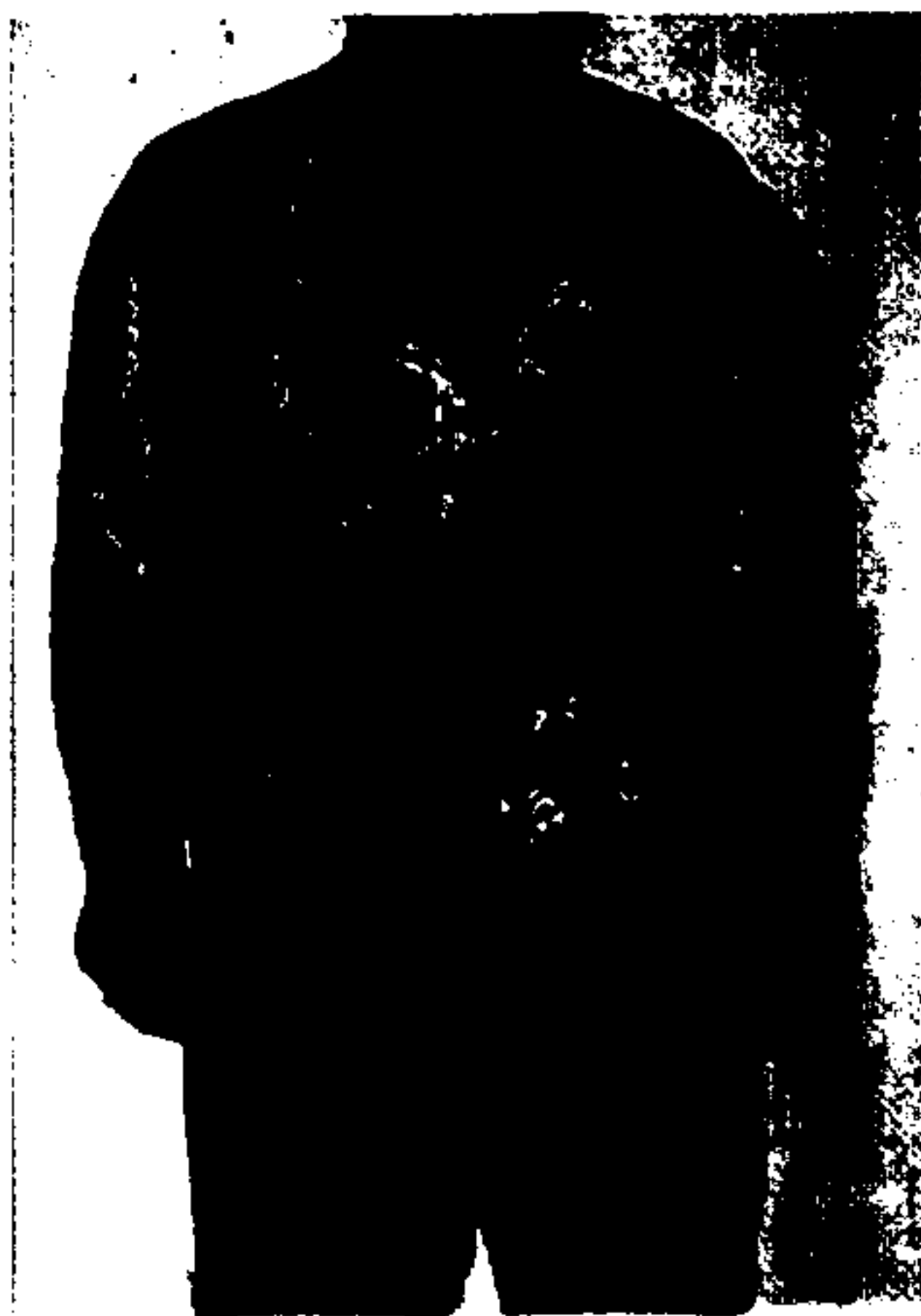


그림30. 전체문신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그림31. 용맹을 상징

(출처 : <http://www.blackpia.com>)

63) 벽사진경(僻邪進慶) : 사귀를 물리치고 좋은 일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64)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제1권, 앞의 책, p.339.

4) 부활의 상징 - 나비(蝶, Butterfly)

속담에 나타나는 나비는 일반적으로 연인을 가리킨다. “꽃이 좋아야 나비가 모인다.”는 말은, 여자 쪽이 좋아야 좋은 배필을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비로 환생하는 설화가 많으며, 이는 한(恨)을 상징한다. 나비는 색상과 무늬가 화려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비는 연인과 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상징은 그 변모에서 특정지어진다. 번데기가 존재의 잠재력을 지닌 알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비는 부활의 상징이다. 그것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징론은 프시케(Psyche) 신화에서도 사용되는데, 프시케는 나비의 날개를 달고 있다. 영혼을 의미하는 프시케는 나비이기도 했다.⁶⁵⁾ 역사와 문학에서는 배우자나 여인을 찾는 남성, 결혼의 기쁨등을 상징하며 서양에서는 부활, 순수한 영혼, 신의 불, 죽은 자의 영혼 등의 상징으로 자주 쓰인다(그림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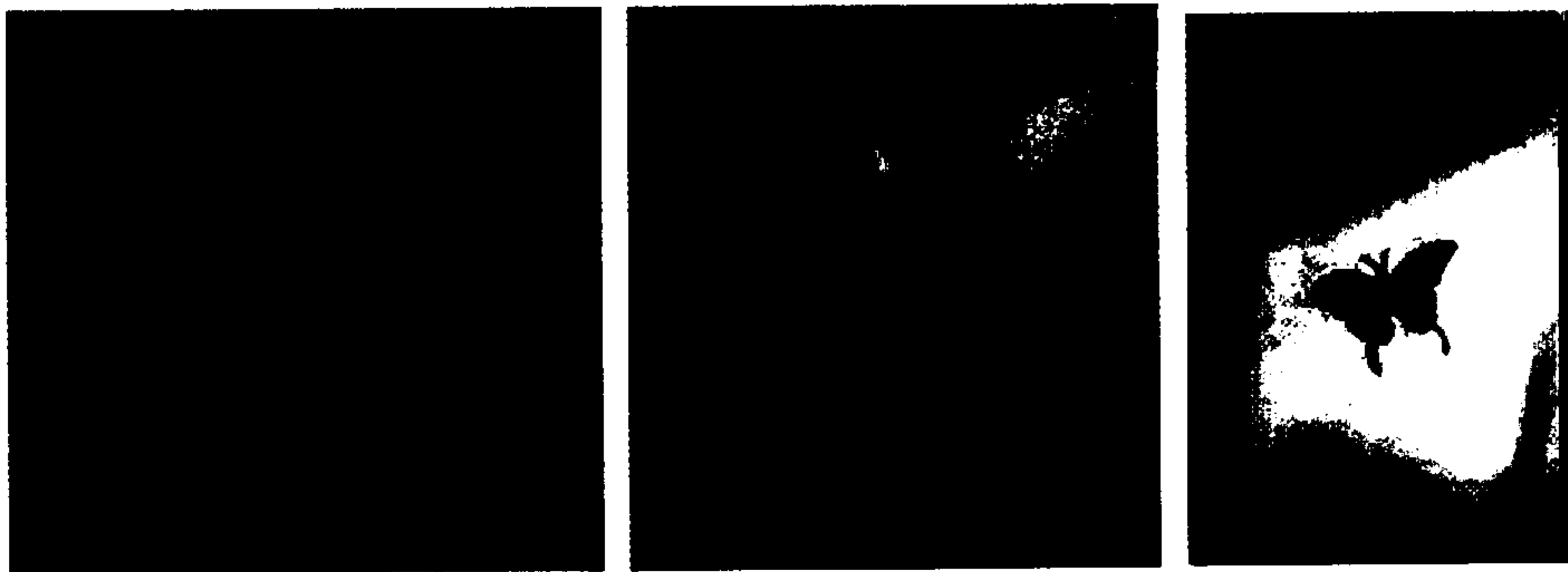


그림32. 나비문신의 다양한 예
(출처 : <http://www.moonsin.com>)

6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제1권, 앞의 책, p.144.

5) 욕망의 상징 - 장미(Rose)

장미는 아주 복잡한 상징이며, 모순 된 의미를 가져서, 천상적인 완전성과 지상적 정념을 나타낸다. 장미는 완전함, 충만함, 완성,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심장부, 불가지, 미, 은총, 행복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탕함, 정념을 나타내며, 포도주와 연관되는 관능, 유혹을 상징한다. 장미는 여신들의 꽃으로서 사랑, 생명, 창조, 풍요, 미를 상징하고, 처녀성을 상징한다. 장미에는 또한 침묵, 비밀, 신중하게 숙고함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황금 장미는 완전성을 의미하며, 붉은 장미는 욕망, 정념, 기쁨, 미, 성취를 의미한다(그림33). 푸른 장미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을 나타낸다.⁶⁶⁾



그림33. 장미는 욕망의 상징이다.
(출처 : <http://tattoonet.com.ne.kr>)

66) J. C. 쿠퍼, 앞의 책, p.p.294~295.

6) 삶의 덧없음의 상징 - 해골(skeleton)

해골은 죽음, 죽어야 할 생명, 시간과 인생의 무상함의 상징이다. 큰 낙과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는 해골은 생명을 잘라버리는 <베는 자>를 나타낸다. 또한 달, 잊혀진 자, 죽은 자를 지배하는 신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특히 신 크로노스/사투르누스, 마야문명의 죽음의 신, 그리고 명계(冥界)와 연관된다. 특히 두개골은 생명의 덧없음, 이 세상의 사물의 공허함,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교훈, 달, 잊혀진 자, 죽음에 이른 태양, 죽은 자를 지배하는 신들, 시간을 나타낸다. 십자로 교차된 대퇴골과 해골을 한 쌍으로 그린 그림은 죽음을 나타내는데, 대퇴골은 생명력 특히 허리에 머무는 생식력을 상징한다.

특히 해골문양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양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크 시대의 중세 유럽인들은 산뜻하게 썩은 인간의 해골을 구하여 방에 장식하였다. 이를 바니타스(vanitas)라고 하는데, '삶의 덧없음'을 상징한다.⁶⁷⁾ 이런 바니타스 속에는 언제나 중세 메멘토 모리의 여운이 남아 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뜻을 지닌 용어이다. 사람들은 이런 메멘토 모리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바니타스를 새겼다. 바니타스는 촛불, 모래시계 등 무상함의 상징과 같이 인체에 각인되기도 하고 정물이나 초상, 풍경 등과 함께 표현하였다(그림 34).⁶⁸⁾ 해골은 죽음을 보증하는 삶의 덧없는 기쁨이며, 무겁고 어두우며, 비참한 의미가 아닌 삶과 죽음은 서로 맞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67)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2), 제28권 제2호, 2000, p.78.

68)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3), 제28권 제3호, 2000,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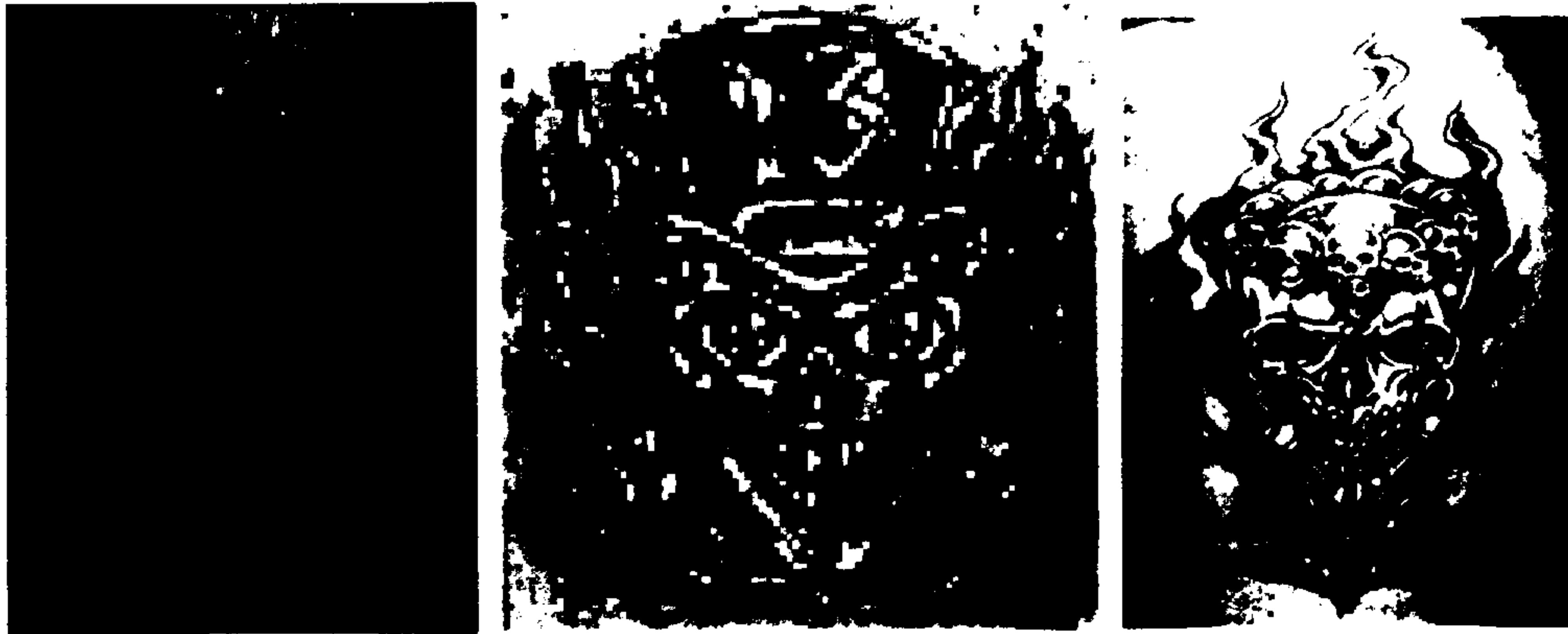


그림34. 삶의 덧 없음을 상징하는 해골 문양
(출처 : <http://www.blackpia.com>)

7) 수호신의 상징 - 도깨비(獨脚鬼)

도깨비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귀류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그리 중요하거나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지닌 신통력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민담과 전설에도 도깨비는 대개가 무서우면서도 어리석어서 잘 다루면 오히려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문신에서는 주로 일본의 오니(鬼)나 덴구(天狗)가 많이 쓰이는 데 오니는 머리에 뿔이 돋쳤고, 험상궂은 얼굴에 송곳니가 밖으로 길게 나온 모습이다. 또 가시 돋친 쇠뿔뿔이를 들고 다닌다(그림35).

신체에 도깨비의 문양을 새김으로 도깨비가 수호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신체에 새김으로써 여성의 몸을 지키는 수문장을 표현하기도 하고, 남성의 신체에 새김으로써 초인적인 힘과 통찰력을 지녔음을 상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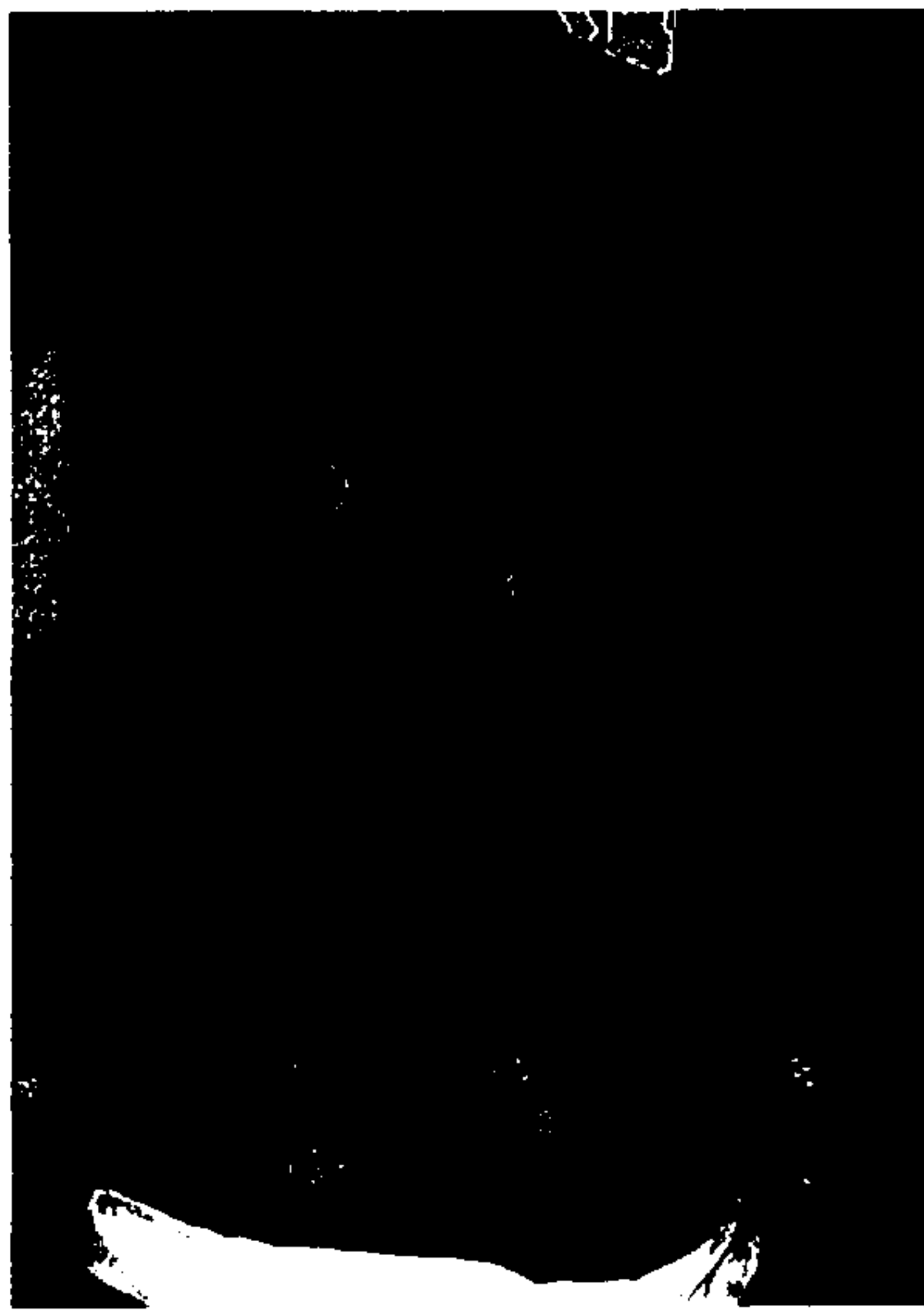


그림35.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도깨비
(출처 : <http://www.taegutattoo.com>)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신에 나타난 전통 문양의 의미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인간은 두려움을 아는 존재로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상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는데, 위에 나열한 문양들을 자신의 신체에 새기고 또한 간직함으로써 자신을 보호 해 준다는 믿음을 갖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도구로,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고 집단 안에서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새겼다.

문양에 대한 의미 부여는 주로 동양적인 문양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식 문신의 경우는 한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더해나가면서, 각 문양간의 위치나 관계는 전혀 고려 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일본식 문신의 경우는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크기가 크고, 전체적으로도 조화 된 디자인이 신체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동양의 전통적인 색상을 사용하고, 신체장식에 매우

충실하다. 살아 있는 눈매를 지닌 용과 구니요시의 삽화를 문신으로 많이 새긴다. 일본식 문신은 이미지 각각의 윤곽은 물론 음영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인체의 그런 한 폭의 동양화라고 할 만큼 예술성이 뛰어나다.

3. 문신의 정체성과 예술성

문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軌)를 같이 한다. 원시시대부터 문신은 원초적인 자기 표현의 본능을 상징했다. 문신은 피어싱(piercing · 뚫기),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헤너(henna)와 함께 바디아트(Body Art) 즉 신체 예술로 분류된다.⁶⁹⁾

현대의 바디아트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들과 복잡한 문화적 발전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 피부 안팎에서 신체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기계 그리고 기술 사이의 구별이 어떻게 점점 더 흐릿해 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문신의 여러 스타일 중 Biomechanical 스타일에서 잘 드러난다. 이 스타일에서는 벗겨진 피부 안에 기계적인 장치가 드러나 보이는 문양이 많다. 그리고 피어싱을 통해 머리에 징을 박아 넣거나 인체에 동전을 삽입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바디아트를 통해 점점 기계화 · 물질화 되어가는 사회를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신을 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충실하려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문신을 새김으로서 집단의 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집단의 한 부분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처럼 문신은 현대

69) 김광숙, 바디아트의 조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제2권 1호, 2001. p.19.

사회에서 점점 소외당하는 인간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문신은 전과자의 상징이지만 서구 사회에서 문신은 이미 초현대적 문화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갈수록 단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자연과 나를 찾아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흐름은 '나를 찾는 예술, 몸의 정치학' 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신체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신체의 변형이나 왜곡 역시 타인의 시선 및 사회적 편견에 상관 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신체를 장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의 표출행위이다.

캐나다의 여성 문신 예술가인 빅 케이트는 자신의 작품인 문신이야말로 나를 남과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행위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한다. 전신 문신이 아닌 자신의 몸 가운데 밍다고 생각 되어지는 부분만을 골라서 원하는 모양을 문신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되었고 남과 차별화 된 자신의 신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 예술가에게 있어 문신은 여성이 얼굴에 행하는 메이크업의 개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여성은 자신의 얼굴에서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수정 보완 시키기 위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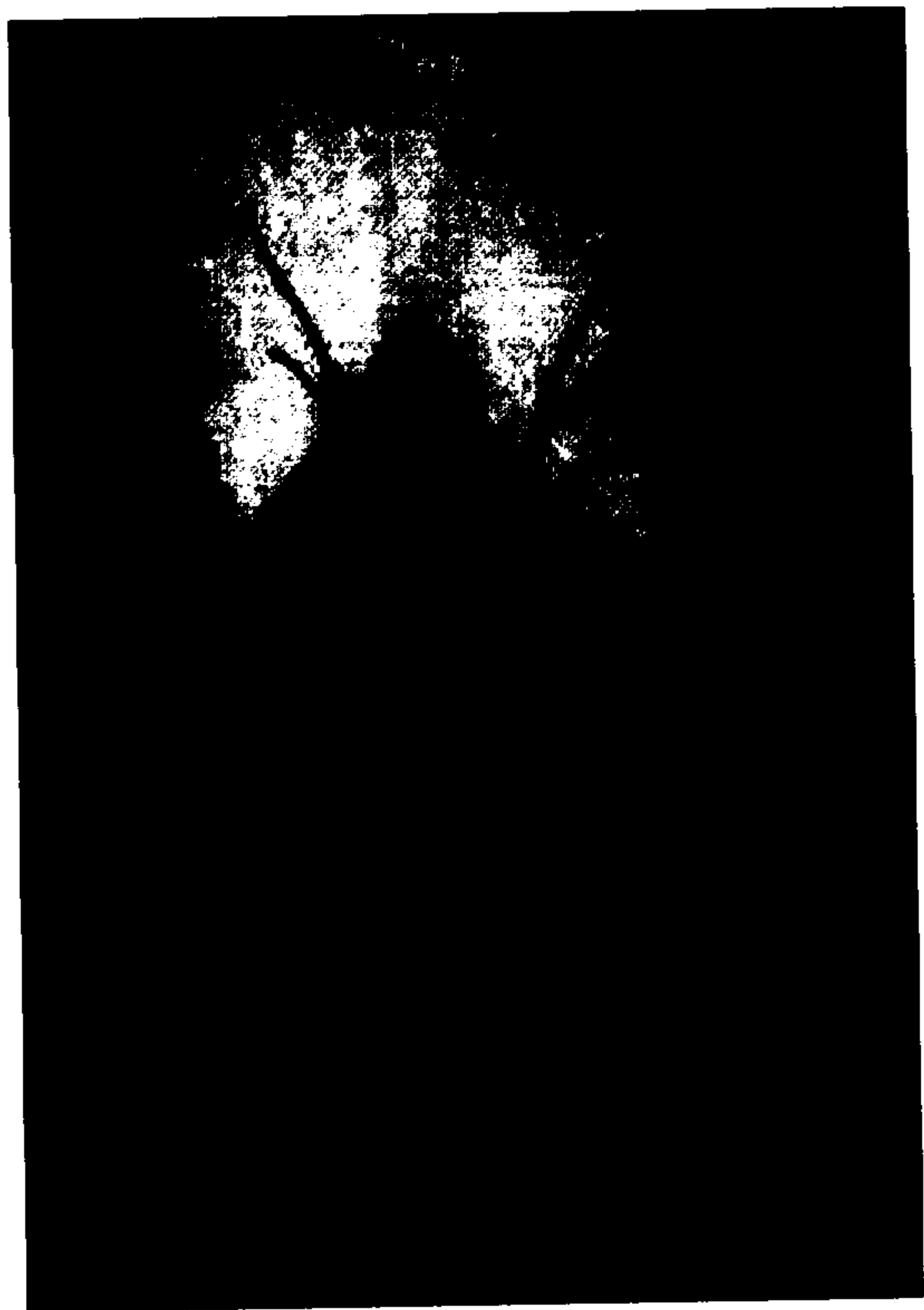


그림36. 문신과 피어싱으로 장식 된 신체
(출처 : <http://www.blackpia.com>)

장을 한다. 여러 가지 메이크업 기법이 개발 되어지고 얼굴에는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르고, 눈 깊숙히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마스크라를 속눈썹 부위에 발라 준다. 여성의 외모 가꾸기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테크닉 또한 만만치 않다. 문신은 이제 더 이상 기괴하고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 얼굴에서 신체로의 메이크업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36을 살펴보면, 우리가 혐오스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문신과 피어싱이 여성의 신체에 행해져 아주 아름답게 표현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점점 변화한다. 미의 개념 역시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영향력 아래에서 생산 되고 획득 되어진다. 한 예를 들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이 귀걸이를 하는 행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소 부정적인 문신에 대한 인식은 점점 미래 사회로 갈수록 인간의 미를 추구하는 다양성의 범주에 포함 될 것이다.

문신은 바디아트 행위로서 보다 더 발전 될 것이며, 보편화 된 현상으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았다.

IV. 문신의 표현적 특성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신체표현의 무제한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이상미에 따른 획일화 보다는 탈중심적인 개성중시와 신체담론의 하나인 비상식적인 신체개념인 그로테스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패션에서는 인간 신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인식하고 재해석한 새로운 신체 미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전적으로 맞추는 획일화 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⁷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디아트의 가장 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인 문신이 패션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디자이너의 감성을 표현 하는 데 활용되어진다. 문신의 패션으로의 유입은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 문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에 나타난 문신의 표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신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중문화예술로서의 문신에 대해 살펴보자.

타투 메이크업은 타투의 퇴폐성과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메이크업이나 바디페인팅을 타투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였다.⁷¹⁾

70)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98, p.3.

71) 서란숙, 근육과 관절 운동을 이용한 바디페인팅기법연구, 인체예술학회지,제 2권 1호 p.119.

1. 문신의 하위문화적 표현

하위문화란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당한 것, 동시대의 지배적 문화 형태와는 다른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로 폭 넓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하위문화는 한편으로는 내부의 능동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류 문화를 거부 한 것이며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를 배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 문화의 주체 형태는 계급론적으로는 노동자/로맨의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세대론적으로는 부모들의 기성문화에 반대되는 청년문화의 위치를, 성애론적으로는 이성애에 반대되는 동성애의 위치를, 인종적으로는 백인 정체성에 반대되는 유색(혼혈인) 정체성의 위치 속에서 형성 된다.⁷²⁾ 즉 하위문화라는 것은 기성세대의 문화에 반발하고, 주류문화에 반발하는 자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저항보다는 육체의 탈금기적 표현을 통한 스타일의 저항을 강조하면서 저항방식이 전화될 필요성을 예시해준다. 즉 기성문화에 대한 식상함,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들의 획일성에 대한 거부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으며⁷³⁾ 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하위문화에 속해 있는 집단은 주로 특징적인 의상 또는 문신과 같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사상, 예술의 혼돈,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반감, 퇴폐주의, 허무주의, 도피적 이상주의를 표현하였다.

영국에서 하위문화의 등장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전후 영국 사회구조의 와해는 노동계급의 생활터전을 위협하였고, 부모 세대가 오랜동안 유지해왔던 가치관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하위

72) Dick Hebdige, 이동연 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8, p.8.

73) 위의 책, p.9.

문화는 노동계급의 생활위기와 부모들이 간직했던 전통문화의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들 자녀들의 불만과 공포와 자유가 담겨진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이다.⁷⁴⁾ 이런 청년 문화의 스타일 안에는 전통적 윤리의식을 지켜나가는 부모문화와 지배문화에 대해 공공연하고 의도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표상되기도 한다. 이들은 스타일을 통한 세대적 저항이야말로 계급과 성과 섹슈얼리티와 세대적 모순이 뒤얹혀 있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더 솔직한 육체적 자기발견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하위문화에 속한 집단들은 사회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스타일을 통해 표현하였다. 하위문화에 속한 집단을 살펴 보면, 히피, 스킨헤드, 힙스터족, 비트족, 테디보이, 펑크족등이 있다. 그 중 전후 영국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가장 과격한 그룹인 펑크는 ‘가치가 없거나 하급의 것, 풋내기, 젊은 악당,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펑크문화는 70년대말 실업의 증가와 그들에 대한 무관심한 사회에 대한 좌절과 반동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격하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의 폭발 직전의 사회적 욕구 불만과 반항에 맞는 스타일을 창출해 내었다. 펑크족은 우선 남에게 시선과 관심을 끌어 모으고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가학 심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혐오스런 문신과 피어싱으로 기존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복식은 항상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존의 미의식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그들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마이크로 미니스커트·플라스틱과 네트로 된 셔츠·멜빵바지·모조 표범 가죽·당돌한 구호가 프린트

74) 위의 책, p.10.

된 티셔츠 등을 고의적으로 무질서하게 코디시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핑크의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수탉의 벼슬 모양인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과 스파이크 헤어라는 비비꼬아 폭발하는 듯한 모양으로 머리를 장식했다(그림37). 메이크업은 눈언저리에 검은 웅덩이 모양으로 선을 두르고 눈꼬리를 날카롭게 그리는 드라큐라형의 화장, 검은 점을 찍거나 입술을 검게 칠하는 등 외관상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피부표현은 아주 창백하고 밝게 해 검정과 흰색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검정색 눈썹, 검정색 아이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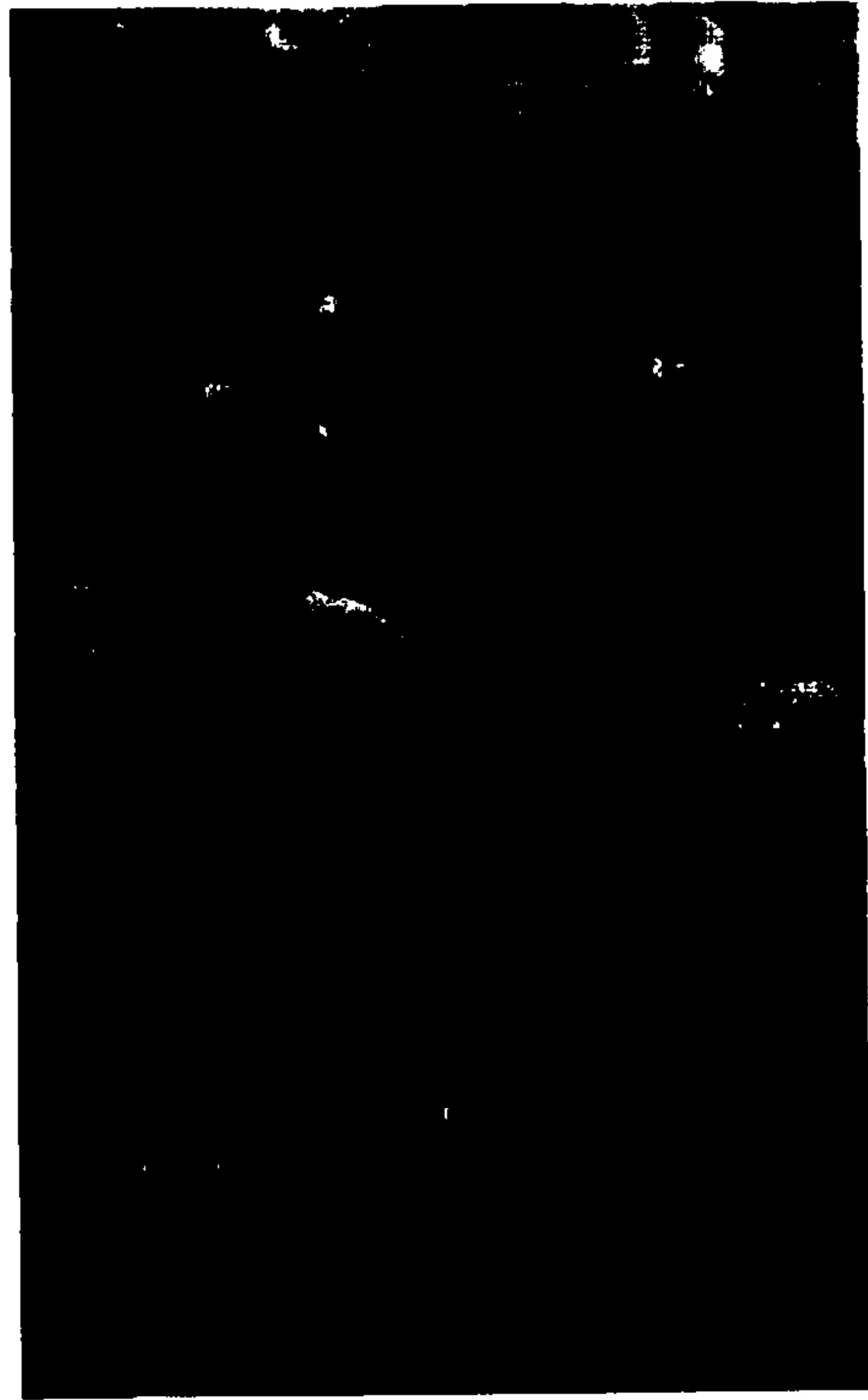


그림37. 핑크족 스타일
(출처 : street Style, p.93)

우와 흰색, 립스틱, 메니큐어에도 검정색 일색으로, 얼굴에 기하학적인 선과 공격적인 뾰족한 선으로 표현해 퇴폐적이며 가학적인 면을 표출한다.⁷⁵⁾ 액세서리로는 면도날·낡은 볼트·반지·옷핀·쇠사슬 등 실생활의 사소한 물건들을 사용했으며, 뾰족한 금속징들이 박혀 있는 가죽 팔찌·장갑·벨트는 폭력적 이미지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파괴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들이 즐겨 사용한 문신과 같은 영구적인 신체 장식은 수정하기가 어려운 안티패션(Anti-Fashion)으로, 이는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을 표시해 주며, 특히 색

75)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 학위논문, 2000, p.25.

다른 컬러의 바디페인팅, 색다른 디자인, 색다른 장식들은 청소년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트라이벌그룹(Tribal Group)의 멤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켜 주기도 한다.⁷⁶⁾ 이들이 주로 사용한 문신은 집단 내의 결속감을 증대시켰고, 보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켜 시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그림38). 그들은 독특하고 다양한 문신을 신체에 새겼다. 펑크족의 스타일을 위해, 하위문화의 개념으로 표출된 문신은 패션으로 유입되면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 되고 그 양태 또한 변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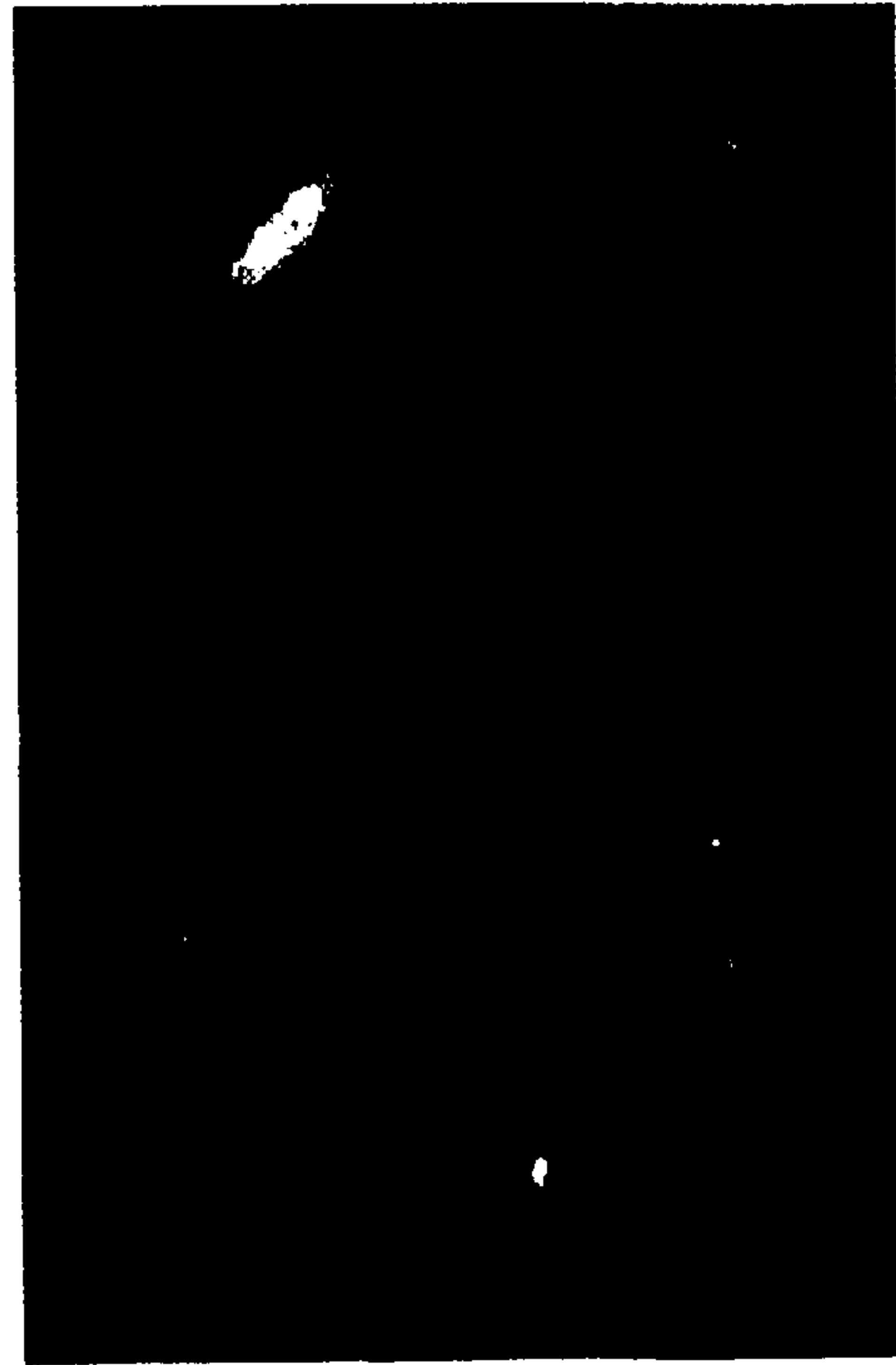


그림38. 펑크족의 문신
(출처 : tatuaggio, p.40)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잔드라 로즈·티에리 뮌글러·클로드 몬타나·장 폴 골티에 등이 있다.⁷⁷⁾

이처럼 각 하위문화 그룹 내에서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패션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반항을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문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신은 안티 패션적 특성을 지닌 요소로 스트리트 스타일로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문신이 패션에 도입되는 잠재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6) Ted polhemus,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4), p.13.

77) 이정옥·최영옥·최경순, 서양복식사, 1999, p.p.463~464.

2. 문신의 원시성 표현

한세기가 가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과 위기감을 함께 느끼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문명화와 기술화의 과정에 있어 인간의 감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물질에의 지나친 종속, 비인간화,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등이 초래 되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런 정신적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시로의 회귀를 꿈꾸게 되었다.

패션에서 원시성은 인간 자신이 처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신체장식의 힘을 빌어 부족의 정령이나 토템의 보호 아래 머물고자 했던 원시인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 특유의 장식 성향과 자연 그대로의 솔직성을 내포하는 삶을 추구하여 원시부족사회의 사람들이 지닌 풍습과 문화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원시성은 장식, 보석, 문신, 의복 등으로 신체의 매력을 성적으로 나타낼 뿐 신체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신체 노출로서 직접적으로 성을 표현하는 특성을 말한다.

현대 패션에서 원시성은 강렬한 원색의 강렬한 색채, 자연요소적 문양들을 프린트하거나 동물의 뼈나 뿔, 털, 새의 깃털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표현 매체를 신체에 장식하거나, 원시적 문양을 몸에 그리는 것으로 것으로 재응용되고 있다.

원시의상에서 보여지는 자연물-상어이빨로 만든 목걸이, 조가비, 깃털로 만든 것-과 신체에 표현된 문신은 기원이나 주문이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쓰여지고, 또 주술적으로 언어나 기도를 대신하기도 했다.⁷⁸⁾ 그러나 문명화 된 오늘날엔 주

술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원시주의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고대에는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신체에 장식을 하거나 문신을 새겼지만 현대에 와서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신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현대 패션에서도 원시적인 장식의 표현 형태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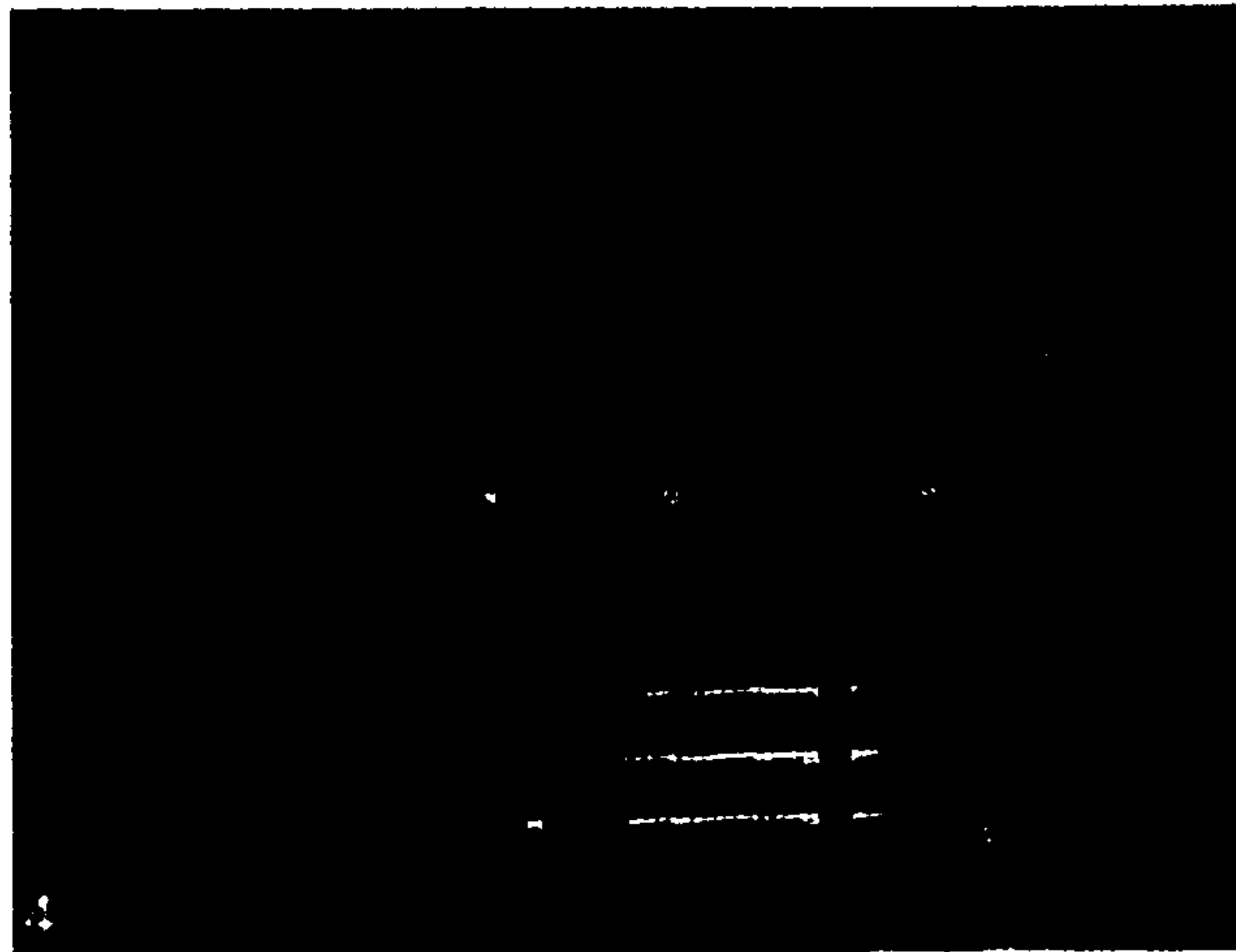


그림39. 세기말의 불안함을 타투메이크업으로 표현
(출처 : BEAUTE, 1997.4)

그림 39를 살펴 보면 원시사회에서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마나 턱 밑에 새기던 점 형태의 문신을 현대의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 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이마에 검은 점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갈등과 방황을 잘 표현 하고 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잃어 버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순수한 원시세계로의 회귀를 꿈꾸게 된다.

78) E. Billeter, Soft Art, 1980, p.8.

79) 이서희, 신체장식에 관한 연구, 건양 자연과학 논문집 제5권, 2001, p.77.



그림40. 신체장식의 변형
(출처 : <http://www.firstview.com>)



그림41. Sonia Rykiel
(출처 : collection, 2001,4)

그림 40은 알렉산드 맥퀸의 97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원시부족의 신체장식의 형태를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변형 시켰다. 원시종족은 자신의 피부를 뚫어 동물의 뼈를 삽입하기도 하고, 둥근 나무판을 입술에 끼워 변형 된 입술을 아름다움이라 생각하였다. 이 그림은 마치 나뭇가지가 머리를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원시부족의 신체장식의 개념을 패션에 도입시켜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1은 팔과 가슴에 꽃과 파도문양의 문신을 새겨넣음으로써 현대인의 자연으로의 회귀 및 동경을 표현하였다. 세련 된 감각의 새틴드레스와 동양적인 문양의 문신을 새겨넣음으로 퓨전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문신은 과거의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스타일의 재현이 아닌 과거의 여러 요소들이 자유롭게 융합된 스타일로서 과거의 것에 대한 재현과 인용의 성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즉, 원시시대의 부족적 모티브의

문신이 현대에 투영되어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신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신은 더 이상 소외된 집단이나 특정한 일부만의 독특한 가치관이 반영된 일탈된 주변문화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성장해 가고 있다. 또한 패션디자이너들은 문신을 재해석하고 그에 따른 모티브를 패션에 응용함으로써, 패션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문신의 의미와 그 표현 방법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를 매력 있게 장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르시즘적 욕망에 의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 몸의 변형, 채색 등 몸을 치장했던 신체장식은 현대 패션에서 신트랜드의 패션아이템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며, 더 이상 저급한 표현이 아닌 신체에 행하는 예술로써 그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⁸⁰⁾

3. 문신의 성적 욕망 표현

패션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미의 방향으로 개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감대를 이전하면서 성적으로 매력적인 복식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되어 복식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⁸¹⁾ 이렇게 성적인 개념의 부각과 함께 문신은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는 데 빼 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되었다. 문신은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성의 신체에 행해지는 문신은 성적 요소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며, 문신을 통해 부각되어지는 신체는 신체 자체의 성적 이미지에 문신이 가지

80)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8, p.40.

81)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5.

는 상징성이 더해짐으로써 한층 더 고조된 에로티시즘을 연출한다. 문신이 새겨지는 부위는 주로 여성의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이나 성적 함축의 의미를 가진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신은 인간의 '보고자 하는 욕구'와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인간의 성적욕망을 끊임 없이 유발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에 의해 성적으로 노골화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하거나 장식된 부위에 더욱 관심을 끌며 극도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신체에 성적인 욕망, 관능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나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문양을 문신하여 장식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극하여 더욱 에로틱한 효과를 유도하기도 하고, 특히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은밀한 곳에 문신을 새김으로써 피부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임마누엘 웅가로의 2000S/S 컬렉션으로 그림 42에서 웅가로는 모델의 가슴에 커다란 꽃문양의 크리스탈 타투를 붙임으로써, 가슴으로 시선이 향하게 하였으며, 크리스탈 타투의 아름다움과 여성 신체의 에로틱한 이미지가 더해져 극도의 여성스러움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림 43은 등에 크리스탈 타투를 부착함으로써 극도의 에로틱함을 연출하였다. 여성의 인체에 있어 가슴과 등은 특히 선정성이 짙은 부위로 여겨져 왔다. 그 중에서 등은 신체의 뒷면에 위치하여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 신체 부위이다. 특히 다른 부분을 가린 채 등을 노출 시키는 것은 '억제된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등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할 지라도 노출되어진 등을 통해 인간은 또 다른 것을 유추하게 되고, 자신의 상상과 더불어 에로티시즘은 더욱 극대화 된다.

또한 2000S/S 알렉산더 맥퀸 쇼에서 보여진 타투메이크업은 여성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을 노출시키면서 배부분까지 문신을 넓게 그려 넣어 가슴부분으로 시선을 끌어 모으면서 더욱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을 하였다. 여성의 신체 곡선을 잘 살리면서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과 함께 여성의 신체를 더욱 강조하여 성적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한다(그림44).

이처럼 여성의 신체 곳곳은 성적 욕망이 응축 되어져 있으며, 패션을 통한 성적 욕망의 표출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신은 페티시즘(Fetishism)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페티시는 일반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매혹적인 대상 자체와, 그 대상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페티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첫번째는 주물(呪物), 물신(物神)의 의미로 안에 영혼이 살아 있다고 믿고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다. 두번째는 비정상적인 숭배나 지나친 관심의 대상, 또는 사로잡힘, 집착의 의미로, 또한 마술적인 혹은 영적인 힘을 가진 것에 대한 매혹적인 생각을 일컫기도 한다.⁸²⁾ 성적 영역에서의 정의와 관련해서, 성적 도착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페티시스트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정한 물건에 대한 집착은 신체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도벽으로까지 이어져 정신 병리학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페티시스트들은 클럽을 중심으로 하나의 하위문화를 이루어 퍼브스(pervs)⁸³⁾ 라는 명칭의 하위문화집단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에로틱한 페티시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를 인체와 복식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체의 일부, 복식아이템, 복식의 재료, 복식의 스타일 4가지 요소로 나눌 수

82) Britannica CD 2.02. Encyclopedia, INC., 1995.

83) 'pervs'는 성적 도착(sexual perversion)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있다. 첫째는 발, 머리카락, 피부 등의 신체의 일부이다. 페티시즘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 한정된 것이나, 이후 여성이 가지는 페티시즘의 경향이 인정됨에 따라, 이는 남녀의 몸 모두에 적용된다. 노출이나 은폐로서 보여지는 신체는 복식 아이템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문신이나 피어싱으로 신체에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 페티시 이미지를 나타낸다.⁸⁴⁾ 이처럼 문신은 에로틱한 페티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며, 성적으로 에로틱한 부위에 문신을 새김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을 끊임 없이 자극시킨다.

성적 이미지와 연결된 페티시즘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한 시기의 집단 행동이나 자신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페티시스트들이 보인 복식 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페티시스트들의 복식이 상업화되어 상품으로서 판매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도 에로틱한 매력을 가진 것으로 흥미를 끌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대중 패션 디자인에까지 확산되어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⁸⁵⁾

그림 45는 2000S/S 알렉산더 맥퀸컬렉션에서 선보인 작품으로서 도미나트릭스(dominatrix)의 모습을 패션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미나트릭스는 사도마조키즘(sadomasochism) 섹스에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자의 역할을 하면서 성파트너를 학대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 여성이 착용한 가죽 의상은 시각적으로 매우 폭력적인 선정성과 함께 강한 힘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체의 은밀한 부분 중의 하나인 등에 문신을 새김으로서 강력하고 현란한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강한 섹스 파워(sex power)를 부각시키고, 성적 환상과 흥분을 유발하는 퇴폐적 도착적 에로티시즘으로 탄생된다.

84) 서기숙, 패션에서 페티시즘 (Fetishism)의 정신분석학적·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1998, p.32.

85) 서기숙, 앞의 논문, p.23.



그림42. 가슴에 새긴 크리스탈 타투
(출처 : <http://www.firstview.com>)



그림43. 크리스탈타투의 관능적표현
(출처 : <http://www.firstview.com>)



그림44. Alexander McQueen
(출처 :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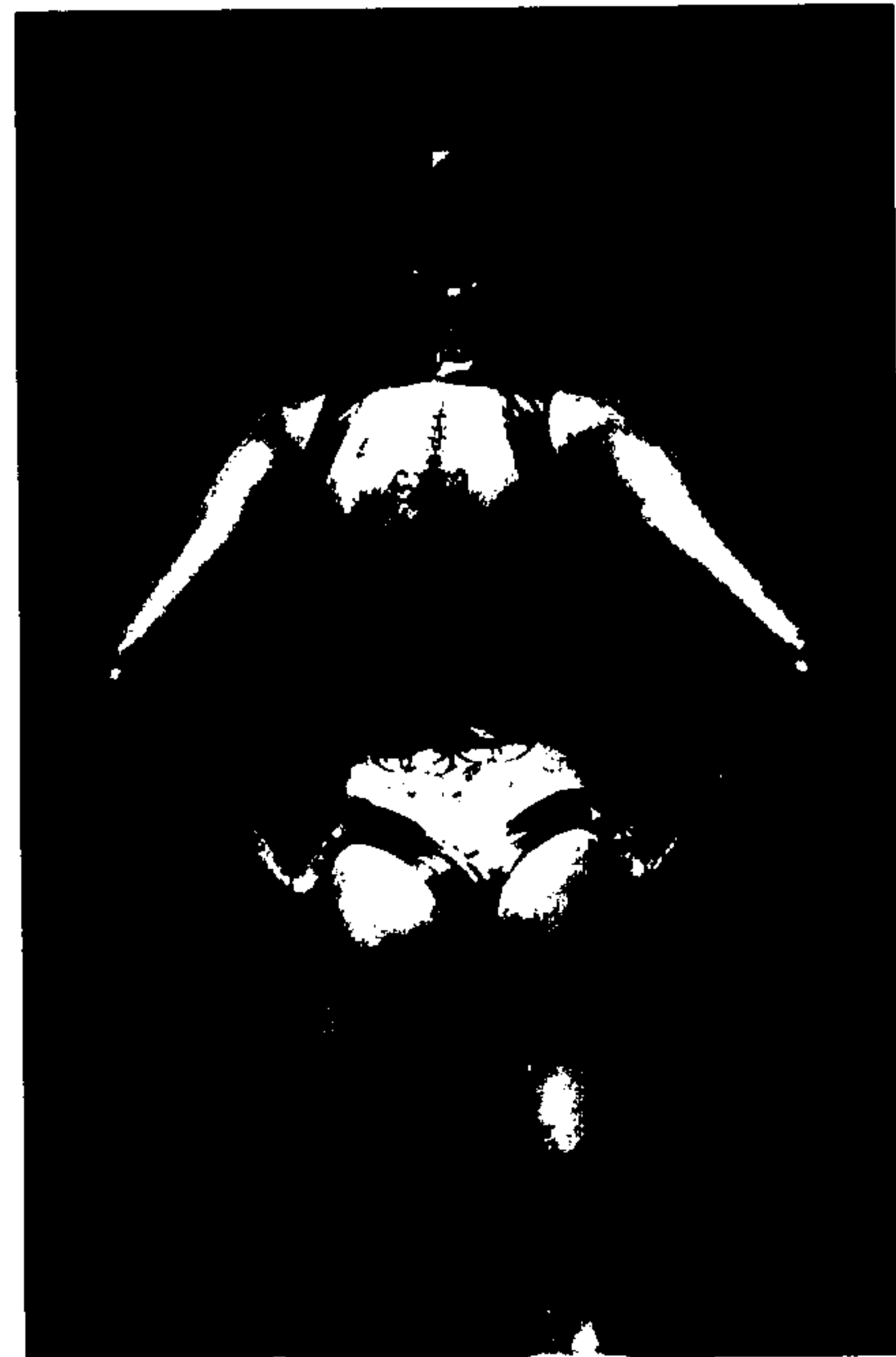


그림45. 에로틱한 패티시이미지의 표현
(출처 : <http://www.firstview.com>)

4. 문신에 대한 인식 전환

문신이 패션의 한 코드로 작용하면서 문신의 개념 또한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종전의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진 문신은 패션으로의 유입과 원시로의 회귀를 꿈꾸는 현대인의 정신적 공황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면서 문신은 일반인에게 보다 더 접근이 용이해졌고, 고급스러운 하이패션으로서의 위치로 자리를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신의 형태 또한 많이 변모하였다. 패션의 개념이 문신에 도입되면서 문신의 영구성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문신의 속성마저 바뀌게 되는데, 일시적인 문신법이 개발되어 우리의 신체를 장식하는 데 부담 없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진다. 문신은 과거의 영구적인 문신과 함께 일시적인 문신 - 타투셀, 크리스탈 타투 - 등이 있으며, 이런 속성변화로 인해 일반인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해졌다.



그림46. 크리스탈 타투
(출처 : <http://www.myfashion.com>)



그림47. 누바족의 상흔
(출처 : tatuaggio, p.36)

그림 46은 일시적인 문신법으로 신체를 장식한 모습인데 매우 아름다우며, 럭셔리하게 표현 되어진다. 특히 크리스탈 타투는 원시민족이 행하던 상흔의 느낌(그림 47)과 매우 비슷하며,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인해 신세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바디메이크업으로 시도되는 럭셔리한 표현으로, 여성의 관능적이며, 아름다운 인체의 선을 따라 연결된 모습이다.

이제 화장은 단순히 얼굴에만 행해지는 개념이 아닌 신체 전체로 확대 되어지는 추세이다. 신체에로의 메이크업의 확대는 미의식의 변화도 있지만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도 빼 놓을 수 없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 지고 또한 추위나 더위 같은 계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신체에서의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드러난 피부 위를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바디 아트가 행해지고 있다. 그 중 문신은 가장 화려하고 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 갈수록 대중적인 사랑과 함께 의복의 대치개념으로 활용 될 것이다.



그림48. 신세대가수 박지윤



그림49. 하리수의 문신

문신이 일반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예인의 문신사용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 문신을 신체에 새기고 일회용 문신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신체에 치장하였다. 이승희의 나비 문신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신세대 가수 박지윤(그림48) 역시 성인 됨의 표식으로 문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트랜스젠드인 하리수가 문신으로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묘한, 도발적인 섹시함을 표출하였다(그림4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문신법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문신법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전문의료진이 시술하지 않으면 불법의료 행위로 규정지어져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영구적인 문신법은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문신의 유행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으며, 이미 일반인의 생활 깊숙히 침투해 있다. 패션문화가 고급스럽게 발달된 런던의 거리를 살펴 보면, 일반적인 여름 패션으로 남성의 경우 반바지차림, 웃웃은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갖가지 문신으로 상체를 치장하고(그림50) 썬글라스, 여행용 배낭 그리고 운동화등 편안한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다. 여성의 경우 청바지 민소매 차림, 팔과 어깨에 그려놓은 문신, 그리고 샌들과 선글라스, 그외 실버



그림50. 젊은이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문신
(출처 : <http://ftp.londonfashionclub.co.kr>)

액서서리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상당히 신경을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자연스러움으로 치장된다.⁸⁶⁾

육체를 통해 인간이 도달하려는 이상은 시대와 지역, 개인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새롭게 등장한 이상에 인간은 늘 충돌을 통해 적응해 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현재 신봉하는 이상과 비교해 적대적인 것이 되지만 현실에서 나타난 정반대의 이상은 어느새 신성한 미의 정수가 된다. 또 미래에는 표준이 될 수 있다. 문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신은 각별한 관계의 표시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신분을 나타냈다. 일반인들은 교도수 수감자의 몸에서나 문신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과거에 문신은 제사장이나 최고의 권력자만이 지닐 수 있는 특별한 상징이었다. 지금이야 장식 문신이 대부분이지만 아마존 원주민에게 문신은 두려움을 쫓기 위한 부적으로 쓰였다. 자학적 쾌감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 하려는 사람들에게 문신은 더 없는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

문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능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치장 되어져 왔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 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탈 된 주변문화의 관점이 아닌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6) <http://ftp.londonfashionclub.co.kr/bodyart.htm>

V. 결 론

인간을 주체로 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인 문신, 피어싱, 바디페인팅과 같은 바디아트는 이미 원시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바디아트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신체에 전사시키고, 보다 개성적인 자아의 표현과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 중 문신은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시각적이고 화려한 신체장식의 방법으로 서 각각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전파 되어져 왔다.

우선 문신은 원시화장의 한 형태로써 원시시대에 활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시 사회에서 문신은 종족의 상징이나 표시로 사용되었다. 자신의 종족과 다른 종족간의 구별을 위해 문신을 사용하였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양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문신은 생물학적 인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문신을 함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을 이겨내고, 사회적 인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신을 새김으로 자연과 질병으로 보호 받고자 했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처럼 원시사회에서 다양하게 쓰여진 문신은, 문신이 가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문신은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 보면, 조선 시대에 주로 문신을 범죄의 표식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체의 손상을 가장 큰 불효요, 수치로 여겼던 사회적 관념 하에서, 살갗에 상처를 내고 글자를 새기는 문신은 가장 부끄러운 모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신은 때로 결속을 상징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남녀간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억눌린 자아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인류의 미의식이 신체를 변형하는 장식법 보다는 신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리고 문신이 범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문신은 대중으로부터 격리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신의 사회적 개념 변화를 살펴 볼 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의 형태는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란 것은 일정한 틀 속에 간직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신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신체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문신은 크게 미국식과 일본식으로 나뉘는데 미국식 문신이 문양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반해, 일본식 문신은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크기가 크고,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한다. 전통적인 문신에 나타나는 용, 잉어, 호랑이등은 의리와 명예등과 관련이 있으며, 장미, 나비등은 성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해골은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문양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저급한 행위가 아닌 인간의 신체에 대한 주권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에 행해지는 하나의 예술적인 활동, 즉 바디아트로 미래로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친숙한 신체에 행해지는 화장의 형태로 변화 될 것이다.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사회 곳곳에 등장함에 따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으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적 무드 아래 인간의 몸과 문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

가 일기 시작했다. 그 인식변화에는 패션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패션은 사회변화의 일부분으로 그 시대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따라 개인의 주체성을 반영하여 변화하기 때문이다. 패션은 무언의 의사소통으로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여 착용자의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타인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하위문화에서 그들이 스타일을 통한 저항을 시도 할 때 문신은 요긴하게 쓰였다. 문신이 가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들은 자신의 저항의식을 신체를 통해 드러내었으며, 이런 하위문화의 스타일을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이 하이패션에 도입하면서 문신의 개념은 더 이상 폭력성·파괴의 개념만이 아닌 새로운 미의 발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 세기가 바뀌고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나날이 가속화 되는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과거의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원시시대의 회귀를 꿈꾸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패션에도 반영되어져 의상도 원시적인 색채와 문양을 사용 하게 되었으며, 메이크업 역시 신체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여러 가지 신체 장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신은 원시로의 회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원시시대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고 문양이 지니는 상징성으로 인해 정신적 위안을 얻기도 했다.

패션에서 문신이 새롭게 대두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시각적 표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신은 신체의 은밀한 곳에 새겨지면 농염한 성적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성욕은 본능인만큼 일반인의 인식 속에 문신은 강하게 각인 되어 진다. 이렇게 문신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재해석 되어 표현 되고 있는 것은 첫째,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문신을 새기기 위한 신체적 고통과 지울 수 없다는 영구적이었던 점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인식변화와 함께, 일회적인 문신이나 스티커 문신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조형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는 다른 도덕관념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현대인에게 있어서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감각, 그리고 감정까지 접목시켜서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화장은 단순히 얼굴에만 행해지는 개념이 아닌 신체 전체로 확대 되어지는 추세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 지고 또한 추위나 더위 같은 계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짐으로써 신체에서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드러난 피부 위를 장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바디 아트가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 문신은 가장 화려하고 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능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치장되어져 왔다.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문신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에만 행해지던 메이크업의 영역이 신체로 확대되면서 바디아트의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 되어진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1998.
-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8.
- 배대균, 한국인의 문신, 배신경정신과의원, 1990.
-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1989.
- 유종현, 별난 인종 별난 에로스 :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성문화, 성하출판, 1996.
- 이규태, 한국인의 민속문화3-우리민족문화의 정체성, 신원문화사, 2000.
- 이상일, 변신이야기, 밀알, 1994.
-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91.
- 이의정·양숙희, 페티시즘, 경춘사, 1998.
- 전규태, 마지막 원시인, 백문사, 1992.
-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1987.
- 정현숙, 20세기 패션, 경춘사, 1992.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2.
-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주 예술, 청구 문화사, 1999.
- Dominique Paquet,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거울아 거울아, (주)시공사, 1998.
- J.C. Cooper, 이윤기 역, 세계문화상징사전, 도서출판 까치, 1994.

John Liggett, 이영식 역, 얼굴 문화, 그 예술적 위장(Human Face), (주) 보고 싶은책, 1997.

John Mack, 윤길순 역, 마스크, 개마고원, 2000.

Leonhard Adam, 김인호 역, 원시미술, 동문선, 1990.

Nicole Avril, 강주현 역, 얼굴의 역사 (Le Roman du Visage), 작가정신, 2001.

Nancy Etcoff, 이기문 역, 美 (The Science of Beauty), 살림, 2000.

Stephen Kern, 이성동 역, 육체의 문화사, 의암출판문화사, 1996.

Victoria Ebin, 임숙자 역, 신체 장식(The Body Decorated), 경춘사, 1988.

〈논문〉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히피풍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지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1, 녹십자의보 163, 2000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문형진, 문신의 습속과 그 유래,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박보영,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배대균, 여성수형자의 문신, 교정135, 1987.
- 서기숙, 패션에서 페티시즘(Fetishism)의 정신분석학적·사회경제학적 관점에
서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혜경, 원시가면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3.
- 안선경,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엄소희,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오세중, 문신을 소유한 장정들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4.
- 이효진, 현대 서양 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전천실, 화장의 사회사, 보건의세계 374, 1987.
- 전혜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영순·소영진, 한국미용의 기원과 발달, 군장대 논문집 8, 2001.
- 최은주,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황춘섭·정현주, 마오리족 전통 복식과 문신 고찰, 복식문화연구6, 1995.

〈외국문헌〉

Richard Corson, Fashions in Make-up, London, Pater Owen, 1972.

Dick Hebdige, Subculture-The Meaning of Style, Methuen & CO.Ltd

Karl Groning,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and Hudson, 1997.

Maggie Angeloglou, A History of Make-up, The Macmillan Company, 1970.

Nathalie Chahine, 100 ANS DE BEAUTE, Atlas S.A. Paris, 1996.

Rufus C. Camphausen, TATUAGGIO, Lyra libri, 1999.

Steve Gilbert, TATTOO HISTORY : A Source Book, Publisher Juno Books, NY,.2001.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1994.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Valerie Steele, Fet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Zandra Rhodes & Anne Knight, The Art of Zandra Rhodes,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잡 지〉

BEAUTE, 1997. 4

Collection, 2001. 4

월간 지오, 1998. 3

〈기 타〉

<http://www.blackpia.com>

<http://www.firstview.com>

<http://www.sussas.com>

<http://www.moonsin.com>

<http://www.myfashion.com>

<http://www.taegutattoo.com>

<http://tattoonet.com.ne.kr>

<http://ftp.londonfashionclub.co.kr>

<http://www.ktma.co.kr>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cal Nature and Expression Feature which appeared in Tattooing

- Centering around Body Art -

Kim, Im J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 meaning of this thesis is in trying to observe diverse meanings in each society that tattooing which is one form of primitive makeup has and in recognizing that the concept of beauty is what is formed and made socially which is not eternally unchanging concept, and the goal of it is to grasp the feature of tattooing as the expression form of new beauty and the expression feature of tattooing to be unfolded diversely with the concept of body art in modern society.

Human beings tried to express numerous things through their own body up to modern times since primitive period. Primitive race tried to display their own beauty and sexual fascination through body

decoration, and they colored or transformed or damaged their own body for indicating their own social position and fortune or sometimes for incantational religious event. But, according as the aesthetic sense to try to decorate body as it is naturally without damaging body appeared than the method to transform body as culture developed, the meaning of body decoration came to be reduced more or less.

As postmodernism thinking appeared everywhere in society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hat were the subjects of alienation and disinterest in former times started to appeared, getting new value. Under this social mood, change started to arise in the recognition about the body and tattooing of human beings also.

This interest came to form new art to widen aesthetic expression from face to body which is referred to as body art to express the world of inner image of human beings on the body of human beings. And, as for tattooing out of it, many people feel fascination and they are trying it because of the symbolical nature that tattooing has with visual gorgeousness. As for tattooing out of body art, this researcher thinks that it will widen the power to new mankind as the makeup technique to be preferred all the more, as we advance to future society, because of the special beauty.

The study method of this thesis progressed centering around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y data about society, culture, art and fashion and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internet and magazine etc. about tattooing, and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photoes in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internet and magazine as visual data by considering that study subject to be tattooing is essentially visual subject.

Findings about symbolical nature and expression feature which appeared in tattoo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ttooing performed the role actively in primitive period as one form of primitive makeup. In primitive society, tattooing was used as the symbol of mark of race. Tattooing was used for the distinction between their own race and other race, and they shared their own pattern. And, tattooing was the symbol to mean rebirth from biological human beings to social human beings. They could endure pain to be added to body, overcome themselves, and receive recognition as social human beings by tattooing. And, they tried to be protected from nature and disease by tattooing, and it was utilized positively as the means for displaying their own beauty.

As the asethetic sense of mankind came to seek the beauty to conserve and make up body than the decoration method to transform body, and as tattooing was used as the means to show crime, tattooing

came to be isolated from mass. Thus, in modern society, tattooing came to have socially negative recognition. In examining the social concept change of this tattooing, it can be seen that the form of beauty doesn't exist constantly at all times in the history of mankind. That is, it can be seen that beauty that we think is not what is held in constant frame but what is made socially.

Tattooing in our country is manifest illegal action. However, in the West, it is being acted into diverse forms on body as one method of self-expression. Tattooing is classified into American style and Japanese style greatly. Then, the tattooing of American style expresses each image of pattern, whereas the tattooing of Japanese style takes serious view of large size and whole harmony to be made by one artist. Dragon, carp, and tiger etc. to appear in traditional tattooing have relation with justice and fame etc.

And, rose and butterfly etc. are used much for sexual image expression. And, skeleton may be regarded as the pattern to symbolize the emptiness of life. Tattooing to be expressed diversely like this may be regarded as the efforts to try to find the sovereignty about the body of human beings which is not low-class action any more, and it will change into the form of makeup to be acted on body which is familiar with us as we advance to future as one artistic

activity to be acted on body, that is, body art.

It is difficult to define tattooing in a word. The body of human beings has been made up in accordance with social standard than human instinct. As for the concept of tattooing which was negative in the past, the value will be recognized in modern society and as we advance to future. And, this researcher thinks that the importance of body art is emphasized all the more, as the domain of makeup which was acted only on face is expanded to body.

This researcher thinks that tattooing as body art is one trial at the point of time when it tries to settle as new art form and that more diverse and concrete succeeding studies will have to be promoted continuously in academic dimension in the future, in this thesis.